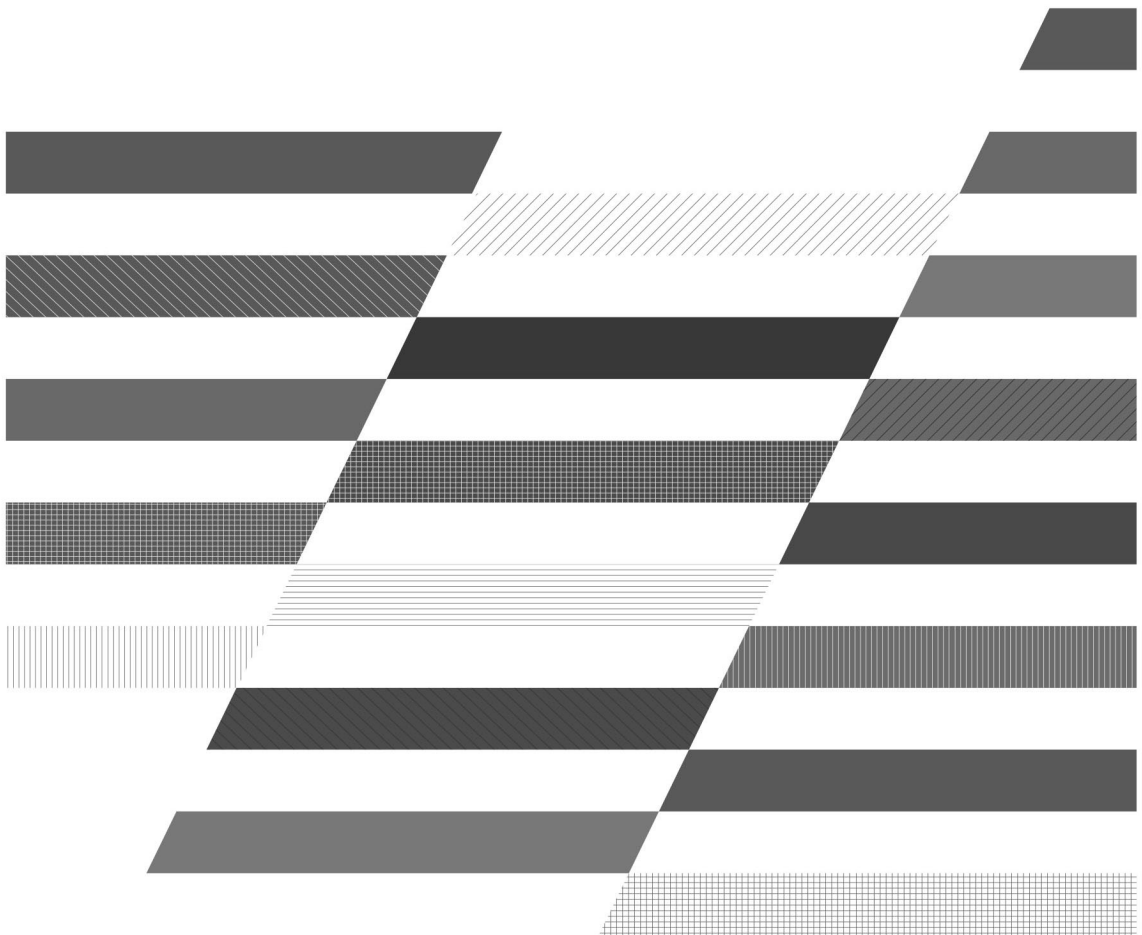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이용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이석환, 권진, 김윤영, 민혜영



책임연구원 **이석환** 서울시50플러스재단 경영기획본부 정책연구팀 책임

공동연구원 **권 진** 예명대학교대학원 교수

김윤영 경기연구원 부연구위원

보조연구원 **민혜영** 서강대학교 박사과정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요약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서울시는 2016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을 설립하고 「서울시 50+지원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만50~64세의 베이비부머 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캠퍼스 설립을 통해 중장년의 공간에 대한 욕구에 대응해 왔음.
 - 서울시는 2016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설립 이후 「서울시 50+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과제 3개 영역, 6대 과제를 구성하고 추진하여 옴.
 - 중장년 세대의 주요 욕구는 불안하다, 갈 곳이 없다, 할 일이 없다 등 3無 요약되며, 서울시 50플러스재단은 설립초기 불안에 대한 대응으로 배움과 탐색, 일에 대해 일과 참여, 갈 곳 없음은 문화와 인프라 전략을 통해 대응해 왔음.
 - 특히, 문화와 인프라는 캠퍼스 조성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으며, 캠퍼스는 지역별 거점 역할을 수행해 옴으로서 중장년의 공간으로 자리 잡음.
-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서부, 중부, 남부, 북부 등 총 4개 캠퍼스를 통해서 중장년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였음.
 - 재단의 주요 사업은 캠퍼스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왔으며, 크게 상담, 교육, 커뮤니티, 일자리로 구분할 수 있고, 각 사업별 참여자는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해오다가, 2020년 이후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정책에 따라 전반적으로 참여자 수가 감소함.
 - 전체 캠퍼스 이용자 또한 2016년 52,329명에서 2019년 356,915명으로 약 6배 증가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19 이후 2019년 대비 1/3수준으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음

<연도별 캠퍼스 이용자 및 사업 참여자 현황>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상담	6,948	18,550	22,910	27,685	18,895	23,017	
교육	4,706	9,714	12,673	11,622	11,819	17,022	
커뮤니티	1,247	1,814	2,812	3,211	1,778	2,257	
일자리	보람	472	553	825	806	1,067	2,188
	경력	30	1,221	1,752	1,502	1,059	1,179
	인턴	-	-	-	174	316	314
	전체	502	1,774	2,577	2,482	2,442	3,681
캠퍼스 이용자	52,329	163,456	288,881	356,915	130,183	163,802	

-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자가 감소하였고, 위드 코로나 시기가 도래한 현 시점에서 이용자 수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위주의 캠퍼스 운영으로 인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용자의 욕구 기반 운영인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
 -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용자가 감소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발생하고, 새로운 캠퍼스가 개관(북부캠퍼스 2020년 10월 개관)되고, 위드코로나 시기가 도래한 현 시점에도 아직까지 이용자의 규모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
 - 한편, 50플러스 캠퍼스가 주요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과연 중장년세대의 '갈 곳이 없다'는 욕구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북부, 남부, 서부, 중부 등 4개 캠퍼스의 중장년 이용자와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욕구가 무엇인지 재차 점검하고, 캠퍼스 운영 실무자 등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캠퍼스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각 캠퍼스 중장년 이용자 및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공간에 대한 욕구를 재차 점검하고, 캠퍼스 운영 실무자의 의견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캠퍼스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캠퍼스가 실질적으로 중장년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들의 공간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략을 도출하고 장기적인 운영계획 수립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연구내용 및 방법〉

영역	연구내용	연구방법
공공공간 이론적 검토 및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운영실태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공간에 대한 이론적 검토 • 상담, 교육, 일, 커뮤니티 등 50플러스 캠퍼스 운영 실태 분석 	문헌연구
서울시 중장년 캠퍼스 이용자 및 미이용자 등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태조사) 1,000명 규모 중장년 캠퍼스 이용자 및 미이용자 실태조사를 통해 주요 욕구 도출 • (인터뷰) 캠퍼스 운영 실무자, 관계자, 중장년 캠퍼스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FGI 실시 	실태조사 및 통계분석, 인터뷰(FGI)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활성화 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GI)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활성화 방안 전문가 의견 수렴 • 현황분석, 실태조사 및 인터뷰 등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50플러스캠퍼스 운영 활성화 방안 제시 	전문가 자문회의

① 공공공간 이론적 검토 및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운영실태 분석

- (문헌연구) 공공공간에 대한 이론적 검토
- 상담, 교육, 일, 커뮤니티 등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운영실태 분석

②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이용자 및 미이용자 등 실태조사

- (실태조사) 1,000명 규모 중장년 캠퍼스 이용자 및 미이용자 실태조사를 통해 주요 욕구 도출
- (인터뷰) 캠퍼스 운영 실무자, 관계자, 중장년 캠퍼스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함으로써 캠퍼스 활성화 방안 도출

③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활성화 방안 제시

- (FGI)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활성화 방안 전문가 의견 수렴
- 현황분석, 실태조사 및 인터뷰 등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운영 활성화 방안 제시

3. 연구결과

1) 공공공간과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1) 공공공간의 개념

- 공공공간(public space)은 공공(公共)과 공간(空間)의 합성어로서 성별, 나이, 민족, 인종, 사회적·경제적 지위와는 무관하게 모든 시민이 접근 가능한 공간을 의미함 (백승경외, 2009).
- 공공공간(public space)은 하버마스의 공공영역(public domain)이 공간적으로 표현되는 물리적 장소이며, 사회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공적 공간임.
- 공공공간을 조성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삶의 터전으로서 '장소'를 만드는 것으로, 공간을 구성하는 물리적인 대상 뿐 아니라 공간특성을 결정짓는 다양한 요소를 대상으로 함.
- 공공공간은 시민들의 업무, 이동, 문화 공간이며, 개방되어 열려있는 공간으로 편익과 이익을 제공하고 다양한 활동과 교류를 촉발시키는 공간임.
- 기존 연구에서 공공공간의 정의를 살펴보면 크게 5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먼저 내부 또는 외부 등 물리적 공간에 초점을 둔 정의가 있음(Krier, 1979; 브로트 벤트, 1990; 서울시, 2008). 공공공간을 물리적 공간으로 보고 정의한 것으로 외부 또는 내부로 공간을 구분하거나 제한하여 정의가 이루어짐.
 - 둘째, 공공의 권위에 의한 조성에 초점을 둔 정의가 있음(Glazer, 1987; Jackson, 1987).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공공의 권위에 의해 이루어졌을 경우 공공공간으로 보는 시각임.
 - 셋째, 사적 및 공적 공간을 구분한 정의가 있음(정석, 1994; 장경철 외, 2006). 공간을 사적 및 공적 공간으로 구분하여 비록 사적 공간이라 할지라도 개방되어있는 공간은 공공공간으로 보는 관점임.
 - 개방에 초점을 둔 정의가 있음(김세용, 1997; 김기환, 2005; 이창훈, 2005; 김영익, 2006; 이상민 외, 2007; Cabe, 2007). '열린 공간' 즉 모두에게 개방되어있는 공간을 공공공간으로 정의함.

- 관계가 이뤄지는 곳에 초점을 둔 정의가 있음(서정숙, 2001;유진선 외, 2008). 공공 공간은 공간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벗어나 사람이 만나고 관계가 이루어지며,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보는 관점임.
- 공공공간에 대한 개념과 기존 연구들의 정의를 종합해 볼 때 공공공간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으로서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경험하고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정의할 수 있음.

(2) 공공공간으로서의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서울시 장년층의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재단의 사업) 제1항 50플러스 캠퍼스 운영’에 따라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음.
-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는 공공시설이라는 측면에서 서울시 장년층 시민들을 위한 개방된 공간으로서 시민들이 모여 만나고 소통하며 관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이를 통해 커뮤니티 등 공동체가 형성되고 결속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
-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는 공공공간으로서 사업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공간 이외의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미비하다고 볼 수 있음.
- 공공공간으로서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에 대해 사업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공간으로서의 기능에 대한 역할을 재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캠퍼스 이용의 주요 대상자인 중장년을 대상으로 공간의 활용방안을 탐색해보고자 함.

2)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현황분석

(1) 캠퍼스 현황분석

-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현재 서부, 중부, 남부, 북부 등 총 4개의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공간의 활용 내역은 다음과 같음.

<서울시50플러스재단 캠퍼스 현황(2021.12월 기준)>

구 분	서부캠퍼스	중부캠퍼스	남부캠퍼스	북부캠퍼스	
개관일자	2016.05.02.	2017.03.06.	2018.03.05.	2020.11.27.	
위 치	은평구 통일로 62길7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구로구 오류로 36-25	도봉구 마들로13길 84	
규 모 (연면적)	3,956㎡ 지하1/지상4층	4,509㎡ 지하1/지상1층, 2층, 4층 ※ 재단본부 : 3층(826㎡포함)	5,714㎡ 지하 3층~지상 4층	6,280.62㎡ 지하1층~지상3층 ※ 창동아우르네 전체 연면적(17,744.60㎡) 대비 35.4%	
대지면적	8,943.2㎡	28,534㎡	19,730㎡	7,663㎡	
층별 용도	4층	강당, 마루교실, 스튜디오	강당, 대강의실, 컨설턴트실, 교실4-1, 4-2, 방석교실	대강당, 창고	-
	3층	학생회관, 모임방, 공유사무실, 모니터레이터실, 일자리실현실	재단본부 사무실, 컴퓨터실, 미디어실	교육실, 컴퓨터실	연수원 (4인실 5개, 2인실 7개)
	2층	교육실, 사무실, 인생학교교무실	사무실, 상담센터	교육실, 컨설턴트실, 학습지원단실, 사무실	학생회관, 교육실(4), 미디어실(2), 컴퓨터실
	1층	상담센터, 모두의 부엌, 카페	50+서재, 공유사무실, 모두의 부엌	상담센터, 공유사무실(6), 북카페	상담센터, 1:1상담실, 공유공간 힘나·신나, 캠퍼스 운영사무실
	지하 1층	기계실	목공실, 음악실, 마루교실, 동아리실, 학습지원단실	스튜디오, 마루교실, 동아리실, 상상제작소, 커뮤니티지원단실, 여직원휴게실	공방, 마루교실, 모두의 부엌, 모두의 식당, 교실 휴얼, 모두의 강당, 모임방 등
	지하 2층	-	-	수영장, 강사실, 기계실 등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관리운영)	주차장, 기계실 등
	지하 3층	-	-	수영장 기계실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관리운영)	-

(2) 캠퍼스 이용자 분석 결과

- 재단 캠퍼스는 지역별 공간의 크기, 지리적 위치, 공간 소유 주체, 공간의 구성 등 상이한 여건을 가지고 있어, 공간을 활성화를 위한 노력 또한 캠퍼스별로 차별화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음.

- 2021년 캠퍼스 이용자는 총 164,802명으로 서부와 중부캠퍼스 이용자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영역은 '50+자치공간 및 카페이용자'였고 남부 및 북부캠퍼스는 '교육과정'으로 나타나 캠퍼스별 중장년의 주요 이용방식 특성이 나타남.
- 한편, 캠퍼스 이용자를 조사하는 방식에서 일부 차이가 나타나 사업참여자, 공간이용자 등 명확한 이용자를 확인하기 위한 통일된 방안 마련 필요.

3)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실태분석

(1) 조사개요

- 조사 대상은 2022년 10월 시점 기준 서울시 거주하는 만 40세 ~ 만 69세(1952.10.~1982.10.)의 중장년 중 캠퍼스 이용자 및 미이용자 총 1,000명으로 구성.
 - 표본 규모는 총 1,000명으로 이용자 476명, 미이용자 524명이 포함됨.
- 설문은 활동영역(일, 퇴직, 활동), 건강·주거·관계 및 삶의 질, 공간 욕구 및 캠퍼스 이용 경험으로 구성하였으며, 조사는 온라인 및 대면 조사가 병행되었고, 2022.9.26.부터 2022.10.14.일까지 약 3주간 실시됨.

(2) 분석결과

- 캠퍼스 이용집단과 미이용집단은 단체활동, 학습활동, 취미·여가 활동 및 공간 욕구 측면에서 모두 상이한 특성을 보임.
 - 활동 측면에서 캠퍼스 이용집단은 미이용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더욱 적극적인 특성을 보였는데 친목단체, 동호회, 자원봉사, 학습활동 및 여가활동 등 모두 이용집단이 미이용집단에 비해 활발하게 하고 있음.
 - 학습 활동의 경우 이용집단은 대부분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를 활용하는 반면 미이용집단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매체를 주로 활용했는데, 향후 메타버스 등을 활용하여 미이용집단이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를 체험하고 캠퍼스에서 제공하는 학습활동과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 중장년은 삶에서 경제활동 및 여가활동의 중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공간 욕구와 프로그램(사업) 욕구에서도 두 활동의 중요성이 높게 도출되어 향후 서울시 50플러스캠퍼스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및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공간 및 콘텐츠 증진을 고려할 필요 있음.

- 한편, 거주지 근처 공간에 대한 욕구를 분석한 결과 미이용집단이 이용집단에 비해 대체적으로 거주지 근처 공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미 거주지 근처 공간 욕구가 높은 캠퍼스 미이용자들의 캠퍼스 이용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울시50플러스 캠퍼스가 공간적, 내용적 측면에서 다른 공간과의 차별성이 강조되어야 함.
- 향후 캠퍼스 미이용집단의 캠퍼스 신규 진입 유인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이용집단의 공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캠퍼스 미이용집단의 캠퍼스 이용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활동 및 사회공헌 활동, 상담 활동 등 캠퍼스가 제공하는 공간 및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다른 공간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기이용집단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일자리 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욕구가 높고 만족도가 낮았던 영역의 강화가 필요함.
-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이용자를 주로 이용하는 캠퍼스별로 구분한 결과 접근성, 활용성, 만족도, 공간 욕구 등이 다르게 나타나 향후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개선방안 수립 시 각 캠퍼스별 위치나 공간적 특성, 캠퍼스 이용자의 특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캠퍼스 이용자들은 공간 선택 시 접근성과 활용성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는데, 캠퍼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캠퍼스별 위치와 이용자 특성을 고려해야 함.
 - 캠퍼스 위치를 바꾸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셔틀버스 등 대안을 제공하는 방안도 접근성을 높이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음. 신체적 건강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의 서비스 및 공간 이용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게 되므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셔틀버스 제공 등과 더불어 메타버스를 활용한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접근성 강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 있음.
 - 캠퍼스의 활용성은 다양한 활동기회, 경험과 체험, 다양한 지원 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함. 캠퍼스의 활용성이 공간 이용 시 중요 결정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응답자들이 캠퍼스 이용 시 서비스 및 정보가 부족하다는 의견, 향후 서비스 및 정보가 다양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욕구, 교육 및 커뮤니티 활동, 일자리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난 것과 무관하지 않음. 향후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는 중장년이 교육 콘텐츠와 여가활동 기회 및 공간을 제공하고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실태분석 결과는 캠퍼스 이용집단과 미이용집단 간 특성 차이를 확인하여 향후 캠퍼스 개선 방안 수립 시 미이용집단의 신규 유입을 높이는 방안과 이용집단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또한 중부, 남부, 서부, 북부 각 캠퍼스의 물리적 특성과 내용(사업)을 실제 이용자의 특성과 공간 경험을 반영하여 개선시킬 수 있도록 근거자료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

4)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FGI

(1) FGI 개요

- 이 연구는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활성화 방안 탐색을 위해 질적연구방법론인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음.
- FGI는 2022년 9월 현재 캠퍼스를 이용하고 있는 중장년 17명, 캠퍼스 사업 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 16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짐.

(2) 이용자 및 실무자 FGI 결과

- 50+ 이용자 활성화를 위한 공간의 내실화와 배려.
 - 중장년은 영유아나 아동청소년, 청년 또는 노년 세대와는 달리 중년 세대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전담지원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음.
 - 퇴직이 빨라져 인생 이모작을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속에서 50플러스캠퍼스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자 만남의 장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서울시 내 네 곳의 캠퍼스는 설립 이래로 다양한 교육과 공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여전히 편의시설이나 공간의 내실화 측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용자와 실무자 FGI 분석 결과, 공통적으로 이용자나 강의자를 위한 편의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졌음.
 -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을 비롯해서 대중교통 이용이나 도보 접근시에 충분한 안내가 안되어 있다는 점은 50플러스캠퍼스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됨.
 - 교육공간을 비롯하여 모임 공간에 대한 불만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교육 이후에 활동이나 네트워킹을 이어갈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은 모든 캠퍼스에서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카페와 같이 모든 방문자들이 오고가며 활용함으로써 활력을 주는 공용공간은 50플러스캠퍼스의 얼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공간에 대한 관심과 운영이 필요함.

- 아울러 도서관이나 중간 중간 쉼터가 있어서 보다 깊이 있는 학습이나 이용자 간 대화가 가능한 공간들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 전문적인 공간은 전문적인 공간답게 충분한 집기와 관련 시설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여러 사람이 돌아가며 사용할 수 있는 모임 공간은 융통성 있는 운영과 원칙적 가이드라인이 공존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 결국 공간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기본조건으로서 이용자에 대한 배려와 안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음.

○ 플랫폼으로서 50플러스캠퍼스 공간.

- 50플러스캠퍼스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서 공공의 영역이지만, 굳이 모든 것을 공공에서 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이용자들의 인식이었음.
- 이러한 인식은 캠퍼스가 일방적인 교육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아닌, 중장년이 단지 이용자가 아닌 주체적으로 주도하는 대상자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으며 아울러 플랫폼으로서 기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인식함을 의미함.
- 50+ 이용자들은 중년 세대에 초점이 맞춰진 유일한 기관으로서 50플러스캠퍼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교육과 커뮤니티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동세대를 만나고 남은 인생을 외롭지 않게 꾸려나가는 기쁨을 누렸다고 응답하였음.
- 학습지원단으로서의 활동이나 자원봉사,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의 변화를 통하여 50플러스캠퍼스가 기회를 제공해주고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장의 역할을 해주는 것에 큰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더 많은 자율권과 운영 참여 등을 원하였지만, 실무측 관점에서는 보안, 안전, 관리의 측면에서 다소 딜레마를 겪고 있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들 역시 중장년이 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능동적 참여자로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이들의 욕구에 최대한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 일자리 기관이 아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 최근 전세대의 일자리와 소득보장이 강조되면서, 50플러스캠퍼스에서도 기존의 인문학이나 문화예술 등의 교양교육이 대거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음.
- 50플러스재단과 캠퍼스는 중장년을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일자리 관련 교육이 중요한 부분이나, 현재로서는 모든 것이 일자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음.

- 특히 이용자의 특성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더욱 제기되는데, 현재 캠퍼스를 이용하고 있는 많은 대상자들이 실업과 소득보장의 문제에 아주 심각하게 노출된 계층은 아니라는 점임.
- 일자리의 문제가 중요한 중년 계층은 이미 일자리에 집중된 다른 사업에 참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음. 현재 이용자 계층은 소득보장에 대한 욕구가 최우선이 아니며, 다른 사람들과의 의미 있는 교류나 나아가 자신의 재능이나 노하우를 전달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더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교육을 마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강의를 이어가거나, 더 진일보한 조직으로 발전하는 과정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서울시 방침에 따라 전직 교육 등이 일괄적으로 전면 배치되는 실정이다 보니 이용자들의 부담이 더 커지고, 기대했던 교육들이 폐지됨에 따라서 캠퍼스 이용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는 것으로 분석됨.
- 더욱이 캠퍼스 초기부터 인문학이나 문화예술 교육에 초점이 맞춰 공간이 구성되다보니 일자리 교육과 같은 성격의 공간으로서는 다소 불편한 점도 존재함.
-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일자리 관련 교육을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논의하에 적절한 수준으로 줄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재정비하는 것이 공간의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음.

○ 캠퍼스별 특성에 따른 시사점.

- (중부캠퍼스) 지리적으로 언덕의 꼭대기에 위치해 있다는 점과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약점들이 인식되고 있었음. 지하철 공덕역에서 물리적 거리가 먼 것은 아니나, 여름이나 겨울에는 언덕을 지나서 캠퍼스에 도달하기 힘든 부분이 가장 두드러졌음. 언덕 중간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터 같은 공간이 제공된다면 배려가 돋보일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중장년이 캠퍼스의 위치를 잘 찾을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이나 입간판, 발바닥 표시 등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강조되었음.
- (북부캠퍼스) 개관이 비교적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환경의 쾌적함이나 공간의 널찍함에 대해서는 장점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다만 넓은 공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음. 또한 공간이 넓다보니 내부에 대한 안내가 잘 되어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컸음. 즉, 공간의 내실화의 관점에서 의견들이 많이 있었음.
- (서부캠퍼스) 캠퍼스 공간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캠퍼스와 비슷한 상황이나, ‘캠퍼스’ 라는 자유롭고 생동감 있는 공간적 이미지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즉, 학습과 낭만 그리고 개성과 표현이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서 캠퍼스의 활성화를 바라보고 있음. 또한 혁신파크 내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 등을 이루어낼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중요한 장점으로 인식됨.

- (남부캠퍼스) 어느 캠퍼스이던지 중장년이 편안하게 와서 오래 머무르며 제2의 인생을 꾸려나가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고 있음. 그중 남부캠퍼스는 병원을 연상시킬 법한 내외부 인테리어의 변화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인식됨.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보다 내실 있는 재구조화가 필요하지만, 첫인상부터 너무 딱딱하고 정형화된 모습을 풍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의 물리적인 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4.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활성화 방안

1) 종합

- 본 연구는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루어졌음.
 -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공공간의 이론적 검토, 캠퍼스 및 이용자 현황분석, 캠퍼스 이용자 및 미이용자 실태조사, 캠퍼스 주요관계자 FGI 등을 실시함으로써 입체적인 시각에서 캠퍼스 공간의 현 문제점을 도출하고 중장년과 관계자의 목소리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는 중장년을 위한 공간으로써 만남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연대성이 형성되어 공동체 형성으로 이어지는 공공공간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음.
 - 서부, 중부, 남부, 북부캠퍼스는 각 지역거점에서 중장년의 인생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중장년의 '갈 곳 없음'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한 기능을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교육, 일자리, 커뮤니티, 상담 등으로 구성된 사업체계를 통해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상담 또는 교육을 참여한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개발하는 등의 활동이 이루어져 온 공간이었음.
-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캠퍼스는 모임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위축되었고 이에 따라 급격한 이용자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위드코로나 시기가 도래하고 공간 이용이 가능해진 현 시점에도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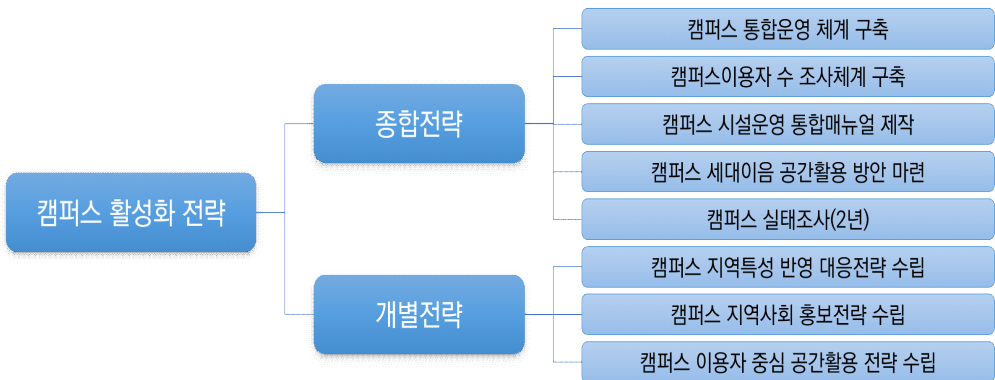
- 캠퍼스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2021년 기준 캠퍼스의 주요 이용자는 50+자치공간 및 카페, 교육 등을 이용한 중장년들이었으며, 캠퍼스별로 이용자의 특징이 나타남.
 - 각 캠퍼스별로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캠퍼스의 주요 이용자는 교육 참여자였으며, 50+자치공간 및 카페이용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를 통해 캠퍼스는 중장년에게 교육공간으로 이해되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2021년 기준 북부캠퍼스를 제외한 3개 캠퍼스에는 카페가 위치해 있었고, 카페 이용자 수를 캠퍼스 이용자 수로 반영하고 있음. 캠퍼스 이용자 중 3개 캠퍼스 모두 카페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한편, 50+자치공간과 카페 이용자 현황은 캠퍼스별 이용자 조사방식의 차이와 타목적으로 이용한 사람들이 혼합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 이해를 위한 명확한 근거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그러나 중장년의 소통과 만남의 공간의 욕구를 유추해 볼 수 있음.
 - 캠퍼스 활성화를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캠퍼스 이용자 수 조사방식에 대한 통일되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함.
- 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 캠퍼스 이용집단과 미이용자 집단은 단체활동, 학습활동, 취미·여가활동 및 공간 욕구 측면에서 모두 상이한 특성을 보였음.
- 캠퍼스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미이용자의 특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미이용자 집단은 활동측면에서 이용집단보다 비적극적이었고, 학습활동 측면에서 절반 이상이 교육경험이 없고, 온라인으로 교육을 참여하고 있었으며, 봉사활동 경험이 적었음.
 - 취미·여가 활동면에서 주로 친구들과 하고 있어 동호회 회원 비율이 높았던 이용자와 차이를 보였음. 취미·여가활동의 어려운 점은 시간 부족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여가 정보 및 프로그램 부족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미이용자와 이용자 모두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활동을 경제활동 및 여가활동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공간에 대한 욕구도 동일하게 나타남.
 - 거주지 근처 공간의 욕구분석에서 미이용자는 이용집단에 비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미이용자 집단이 상대적으로 젊고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연관성이 있다고 추정됨. 즉, 거주지 근처 공간 욕구가 높은 캠퍼스 미이용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캠퍼스 공간이 공간적·내용적 측면에서 다른 공간과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함.

- 실태조사를 통해 캠퍼스마다 접근성, 활용성, 만족도, 공간욕구 등이 다르게 나타나 캠퍼스별 맞춤형 전략 수립 필요성이 나타남.
 - 중장년은 공간 선택 시 접근성과 활용성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이용자와 미이용자 동일한 결과였음.
 - 모든 캠퍼스는 서비스 및 정보 다양화와 자율공간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남부와 중부는 이동수단 마련, 북부는 공간관리 효율화, 서부는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노력이 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중장년은 캠퍼스 공간을 교육, 커뮤니티활동, 일자리지원 공간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 특히, 미이용자는 캠퍼스는 커뮤니티 활동공간으로서 기능을 해야 한다는 욕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캠퍼스가 중장년이 편하게 방문하고, 만남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보여줌.
- 중장년의 공간에 대한 심층분석을 위해 FGI를 실시한 결과 캠퍼스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간의 내실화와 배려, 플랫폼으로서의 공간,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지역사회 내 캠퍼스의 욕구가 드러남.
 - 이용자FGI에서 캠퍼스 내 중장년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공간의 내실화와 공간이용에 대한 배려에 대한 욕구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공간이용절차의 까다로움과 닫힌 공간으로서 캠퍼스는 중장년의 접근을 어렵게 하고, 만남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함.
 - 일자리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며, 삶의 의미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이용자의 특성 맞춰 공간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함.
 - 공공공간으로서 캠퍼스는 '세대이음'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기능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사업공간은 중장년을 위한 공간이지만 그 외 공간은 세대가 소통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공간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함.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 친화적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문화공간을 추구해야 한다고 이야기함.
 - 실무자FGI에서는 목적에 맞게 공간을 운영하고 이용자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공간으로 변화해야 함을 말함. 이를 위해서는 캠퍼스 운영에 대한 통합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컨트롤 타워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함. 캠퍼스의 활성화는 이용자 중심의 운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였으며, 사람을 키우고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캠퍼스가 거듭나야 한다고 이야기함.

2) 활성화 방안

(1) 캠퍼스 공간 활성화 중장기 계획수립

- 캠퍼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캠퍼스 종합대응 방안 마련과 캠퍼스별 맞춤형 전략수립 필요성이 분석과정을 통해 드러났으며, 이는 캠퍼스 공간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 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전략은 재단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비전과 미션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점과 캠퍼스별 개별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 계획수립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계획수립은 캠퍼스 미이용자의 참여에 초점을 두고 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캠퍼스 통합 전략과 함께 캠퍼스별 개별전략을 구축하여 각 캠퍼스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세부과업 수립을 통해 실현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임.
 - 아래 그림은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활성화 전략 체계도로서 중장기계획 수립시 달성해야 할 세부적인 과업들을 종합 및 개별전략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임.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활성화 전략 체계도〉

가. 종합전략

① 캠퍼스 통합운영 체계 구축

- 캠퍼스 운영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구체화하여 통합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4개의 캠퍼스에 대한 주 단위 또는 월 단위 운영현황 관리, 주요 이벤트 및 활동 등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위해서 사업운영본부는 컨트롤 타워 기능을 마련하여, 캠퍼스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 이를 통해 캠퍼스의 운영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점검 할 수 있을 것이며, 지속적으로 캠퍼스 운영전략을 수립해 나가는데 있어서 실증적인 데이터에 기반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캠퍼스는 컨트롤타워 기능 지원을 통해 캠퍼스 운영에 대한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재단과 함께 운영방안을 공유함으로써 캠퍼스 공간활용 혼란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임.

② 캠퍼스 이용자 수 조사체계 구축

- 캠퍼스 활성화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업참여자에 국한하여 이용자 수를 확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캠퍼스를 이용하는 중장년 등에게 회원카드 발급 등을 통해서 캠퍼스 이용시 실질적인 이용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캠퍼스 이용자 수 조사체계 구축은 향후 경영평가 성과지표에 대한 객관적인 실적제시에 용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캠퍼스 활성화 정도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임.

〈캠퍼스 이용자 경영평가지표 예〉

(1안). 서울시 중장년 인구 대비 캠퍼스 이용자

당해연도 이용자	-	전년도 이용자
서울시 중장년 총 인구		서울시 중장년 총 인구

- ① 각 사업 이용자: 상담, 교육, 일자리, 커뮤니티 참여자
- ② 캠퍼스 공간이용자: 멤버십 카드 발급 및 출입확인 절차 마련 제안

(2안). 서울시 중장년 인구 대비 캠퍼스 신규 이용자

당해연도 신규 이용자	-	전년도 신규 이용자
서울시 중장년 총 인구		서울시 중장년 총 인구

- ① 각 사업 신규 이용자: 상담, 교육, 일자리, 커뮤니티 참여자
- ② 캠퍼스 공간 신규 이용자: 멤버십 카드 발급 및 출입확인 절차 마련 제안.

③ 캠퍼스 시설운영 통합매뉴얼 제작

- 재단의 미션·비전에 입각하여 캠퍼스를 일관성 있게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공간 운영에 대한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함.
 - 캠퍼스 공간활용 및 대관신청 절차 어려움, 공간관리 부담 등 이용자와 실무자의 이해 갈등을 해소하고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캠퍼스 공간활용 절차 마련을 위해 캠퍼스 통합 공간관리 매뉴얼을 개발해야 할 것임.
 - 사업공간(교육장, 강당, 컴퓨터실, 공유사무실 등) 및 공유공간(50+서재, 동아리실, 복도공간 등) 운영방안을 구분하고 이용자 관점에서 이용 절차의 간소화, 탄력적인 공간활용 등이 담겨야 할 것임.

④ 캠퍼스 세대이음 공간활용 방안 마련

- 캠퍼스가 중장년분만 아니라 중장년이 청년세대와 노인세대를 잇는 세대이음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공간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중장년의 욕구는 단순히 이지트 개념을 넘어 타세대와 함께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캠퍼스를 기대하고 있음.
 - 이용자 시각에서 캠퍼스의 기능을 개편하여, 사업공간을 제외한 공간을 모든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해야 할 것임.
 - 이를 실현하기 위한 캠퍼스 세대이음 공간활용 전략 수립을 제안함.

⑤ 캠퍼스 실태조사(2년)

- 캠퍼스 이용자 및 미이용자의 욕구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변화하는 중장년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실태조사 실시를 제안함.
 - 캠퍼스 이용자 및 미이용자의 공간에 대한 욕구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캠퍼스 공간 활용 공간전략을 보완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나. 개별전략

① 캠퍼스 지역특성 반영 대응전략 수립

○ 캠퍼스별로 나타난 이용자의 개선 요구에 따라 개선 전략 마련 필요.

- 중부 및 남부캠퍼스는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셔틀버스 운영(지역 내 마을버스 MOU 방안 등) 등으로 이용자의 접근 편의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것을 제안함
- 서부, 중부는 공간 이용방식에 대한 통합 운영방안(공동 매뉴얼) 마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건물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여 탄력적인 공간이용 방안 마련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임.

② 캠퍼스 지역사회 홍보전략 수립

○ 2020년 서울시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50플러스재단 및 캠퍼스를 인지하고 있는 중장년은 전체 조사 대상자의 3% 수준으로 230만 중장년 대상자 중 약 7~8만명이 캠퍼스를 인지하고 이용하고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음.

○ 캠퍼스 잠재 이용 대상자가 많다는 점을 착안하여 캠퍼스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캠퍼스 홍보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 이용자 및 실무자 심층 인터뷰에서 나타났듯이 50플러스캠퍼스는 지역사회 내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음. 지역사회 내 알려지지 않은 공간이 서울시 중장년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는 것은 어렵다고 보이며, 홍보전략 전환의 필요성을 암시함.
- 캠퍼스 홍보전략은 기존 온라인·행사 중심적 성격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내 밀착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예를 들어 지역사회 유관단체 및 기관(주민센터, 50플러스센터, 사회복지시설 등)과 홍보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캠퍼스 이용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과의 정기적인 소통 방안 마련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서 지역사회 내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전환을 꾀해야 할 것임.

③ 캠퍼스 이용자 중심 공간활용 전략 수립

○ 지역사회 특성 및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공간활용에 대한 캠퍼스별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함.

- 중장년들의 공간 이용에 대한 조사결과와 같이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캠퍼스의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특성 반영 전략이 가미되어야 할 것임.

- 공통매뉴얼을 통한 공간관리 방안에 덧붙여 지역별 여건에 따른 이용자 욕구 중심 공간 활용 전략 수립이 필요함.
- 예를 들어 대부분의 중장년(약 70%이상)이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퇴근 이후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 대여시스템을 마련하거나 사업 외 공간에 대한 개방방식의 전환 등이 있을 수 있음.

Contents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7
제2장	공공공간에 대한 이론적 배경	
	제1절 공공공간과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11
	1. 공공공간의 개념	11
	2. 공공공간으로서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14
제3장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현황 분석	
	제1절 캠퍼스 현황 분석	17
	1. 캠퍼스 개요	17
	제2절 캠퍼스별 이용자 분석	19
	1. 서부캠퍼스	20
	2. 중부캠퍼스	21
	3. 남부캠퍼스	22
	4. 북부캠퍼스	23
	제3절 종합 및 시사점	24

제4장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실태분석

제1절 조사 개요	27
1. 조사목적	27
2. 조사설계	27
제2절 분석 결과	30
1. 응답자 일반적 특성	30
2. 캠퍼스 이용 여부에 따른 집단별 특성 및 욕구	31
3. 캠퍼스별 이용자 공간 경험 및 욕구	42
제3절 종합 및 시사점	47

제5장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FGI

제1절 FGI 개요	51
1. 인터뷰 방법 및 참여자 선정	51
2. 자료분석 방법	53
제2절 이용자 FGI 결과	54
1. 이용자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공간 마련	59
2. 교육의 다양화	61
3. 모일 수 있는, 모이고 싶은 50플러스캠퍼스로	62
4. 이용자에 대한 특성 파악	64
5. 50플러스캠퍼스의 플랫폼 역할	66
6. 홍보의 활성화	68
7. 공간 운영의 새로운 방향성 모색	69
제3절 실무자 FGI 결과	70
1. 목적에 맞는 내실 있는 공간 운영	74
2. 이용자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곳	75
3. 50플러스재단의 통합적인 운영관리의 필요성	76
4. 주체적이고 소속감을 가진 이용자로	78
제3절 종합 및 시사점	79

제6장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활성화 방안	
	제1절 종합	85
	제2절 활성화 방안	88

	참고문헌	93
--	------	----

표목차

〈표 1-1〉 「서울시 50+지원 종합계획」의 추진과제(3개 영역, 6대 과제)	3
〈표 1-2〉 연도별 캠퍼스 이용자 및 사업참여자 현황	5
〈표 1-3〉 연구내용 및 방법	7
<hr/>	
〈표 2-1〉 공공공간의 다양한 정의	13
<hr/>	
〈표 3-1〉 서울시50플러스재단 캠퍼스 현황(2021.12월 기준)	18
〈표 3-2〉 캠퍼스 이용자 현황(2021년 기준)	18
〈표 3-3〉 서부캠퍼스 이용자 현황(2021년)	20
〈표 3-4〉 중부캠퍼스 이용자 현황(2021년)	21
〈표 3-5〉 남부캠퍼스 이용자 현황(2021년)	22
〈표 3-6〉 북부캠퍼스 이용자 현황(2021년)	23
<hr/>	
〈표 4-1〉 연구의 설계	28
〈표 4-2〉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실태조사 설문 구성	28
〈표 4-3〉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이용자 실태조사 응답자 일반적 특성	30
〈표 4-4〉 캠퍼스 이용집단별 성별 구성	31
〈표 4-5〉 캠퍼스 이용집단별 연령집단 구성	31
〈표 4-6〉 캠퍼스 이용집단별 가구소득 구성	32
〈표 4-7〉 캠퍼스 이용집단별 소득활동 여부	32
〈표 4-8〉 캠퍼스 이용집단별 단체활동 특성	33
〈표 4-9〉 캠퍼스 이용집단별 자원봉사활동 여부	33
〈표 4-10〉 캠퍼스 이용집단별 자원봉사활동 월 평균 빈도 및 회당 평균 시간	34
〈표 4-11〉 캠퍼스 이용집단별 자원봉사활동 참여 기관	34
〈표 4-12〉 캠퍼스 이용집단별 학습활동 경험 여부	34
〈표 4-13〉 캠퍼스 이용집단별 학습활동 월 평균 빈도 및 회당 평균 시간	35
〈표 4-14〉 캠퍼스 이용집단별 학습활동 공간	35
〈표 4-15〉 캠퍼스 이용집단별 취미·여가활동을 함께 하는 사람	36
〈표 4-16〉 캠퍼스 이용집단별 취미·여가활동 시 어려운 점	36
〈표 4-17〉 캠퍼스 이용집단별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	37
〈표 4-18〉 캠퍼스 이용집단별 활동별 향후 참여 희망 정도	38
〈표 4-19〉 캠퍼스 이용집단별 건강상태 비교	38
〈표 4-20〉 캠퍼스 이용집단별 우울감 비교	39
〈표 4-21〉 캠퍼스 이용집단별 영역별 삶의 만족도 비교	39

〈표 4-22〉 캠퍼스 이용집단별 거주지 근처 공간 인식 비교	40
〈표 4-23〉 캠퍼스 이용집단별 공간욕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간	41
〈표 4-24〉 캠퍼스 이용집단별 공간욕구: 공간 이용 시 고려 요인(1순위)	41
〈표 4-25〉 주 이용 캠퍼스별 이용자 분포	42
〈표 4-26〉 캠퍼스별 이용 빈도 및 시간	42
〈표 4-27〉 캠퍼스별 주 이용 공간	43
〈표 4-28〉 캠퍼스별 이용 만족도	43
〈표 4-29〉 캠퍼스별 이용 불만족 이유	44
〈표 4-30〉 캠퍼스 공간 활성화를 위한 개선 요구 사항	44
〈표 4-31〉 캠퍼스별 이용 공간 욕구	45
〈표 4-32〉 캠퍼스별 사업 필요성 인식	46
〈표 5-1〉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FGI 참여자 특징	52
〈표 5-2〉 중부캠퍼스 이용자 FGI 분석결과	54
〈표 5-3〉 서부캠퍼스 이용자 FGI 분석결과	56
〈표 5-4〉 남부캠퍼스 이용자 FGI 분석결과	57
〈표 5-5〉 북부캠퍼스 이용자 FGI 분석결과	58
〈표 5-6〉 중부캠퍼스 실무자 FGI 분석결과	70
〈표 5-7〉 서부캠퍼스 실무자 FGI 분석결과	71
〈표 5-8〉 남부캠퍼스 실무자 FGI 분석결과	72
〈표 5-9〉 북부캠퍼스 실무자 FGI 분석결과	73

그림목차

[그림 [6-1]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활성화 전략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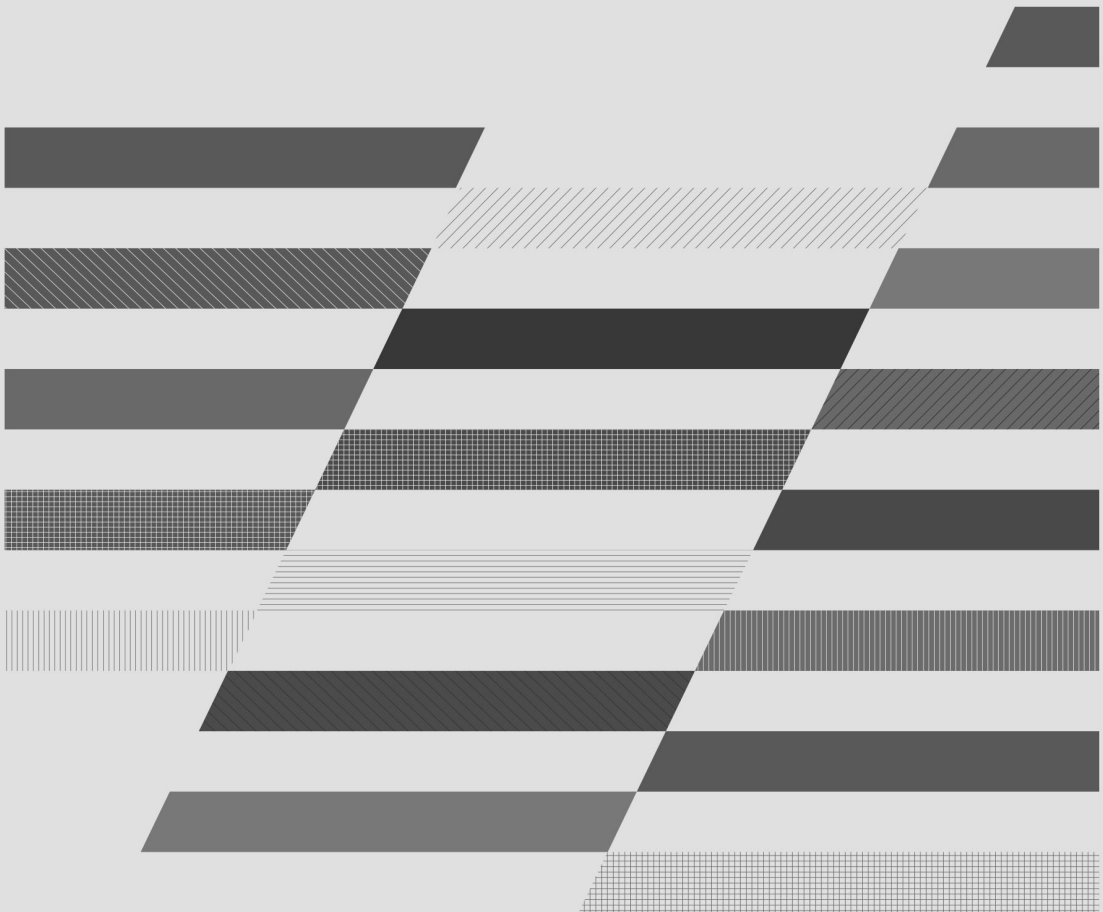
88



제 1 장



서 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 서울시는 2016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을 설립하고 「서울시 50+지원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만50~64세의 베이비부머 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캠퍼스 조성을 통해 중장년의 공간에 대한 욕구에 대응해 왔음.
- 서울시는 2016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설립 이후 「서울시 50+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과제 3개 영역, 6대 과제를 구성하고 추진하여 옴.
- 중장년 세대의 주요 욕구는 불안하다, 갈 곳이 없다, 할 일이 없다 등 3無 요약되며,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설립 초기 불안에 대한 대응으로 배움과 탐색, 일에 대해 일과 참여, 갈 곳 없음은 문화와 인프라 전략을 통해 대응해 왔음.
- 특히, 문화와 인프라는 캠퍼스 조성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으며, 캠퍼스는 지역별 거점 역할을 수행해 옴으로서 중장년의 공간으로 자리 잡음.

〈표 1-1〉 「서울시 50+지원 종합계획」의 추진과제(3개 영역, 6대 과제)

추진과제	6대 과제	세부과업
50+나를 위한 플러스-100세 시대, 인생 2막의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배움과 탐색	1.인생재설계 교육	1-1. 인생2막의 길 찾기, 인생재설계 교육 1-2. 찾아가는 인생재설계 교육 1-3. 커리어 연계·모색 과정(보람일자리 포함) 1-4. 전직지원 특화 교육(양코르커리어 초점) 1-5. 당사자 기획과정(N개의 아카데미) 운영 1-6. 교육기관과 연계한 인문학 교육 실시

추진과제	6대 과제	세부과업
	2.체계적 종합상담	2-1. 50+종합상담센터(인생재창조 상담센터) 운영 2-2. 50+컨설턴트·50+모데레이터 양성, 배치 및 파견 2-3. 50+종합가이드북 발간 및 제공 2-4. 50+정보센터 운영 2-5. 50+포털 등 인터넷 활용한 종합정보 제공
50+서울을 위한 플러스-중장년의 힘이 서울의 미래에 플러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참여	3.사회공헌일자리	3-1. 보람일자리 발굴·제공 3-2. 기업연계 양코르펠로우십 발굴·추진 3-3. 50+서울관광 활성화 일자리사업 발굴·추진 3-4. 도농교류를 통한 일자리 발굴·추진 3-5. 청년정책을 지원하는 일자리 발굴·지원
	4.창업·창직 기술교육	4-1.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조직 설립 지원 4-2. 인큐베이팅 공간 제공으로 자생력 강화 4-3. 교육기관과 연계한 직업전문교육 실시 4-4. 중장년 취업지원기관 연계한 원스톱 서비스 4-5. 50+센터 중심 자치구별 특화 일자리 지원
50+너와 나를 위한 플러스-새로운50+문화를 함께 만들고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문화와 인프라	5.새로운 문화 창조	5-1. 50+단체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 5-2.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한 50+물모델 확산 5-3. 50+기자단과 서포터즈를 통한 콘텐츠 직접 양산 5-4. 문화예술과 여가를 통한 50+문화 감수성 함양 5-5. 품격 있는 일상생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5-6. 100세 시대를 위한 건강 예방 서비스 제공 5-7. 찾아가는 소포마당 협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5-8. 재능나눔(프로보노)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6.충족한 지원체계 구축	

○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서부, 중부, 남부, 북부 등 총 4개 캠퍼스를 통해서 중장년 세대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으며,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였음.

- 재단의 주요 사업은 캠퍼스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왔으며, 크게 상담, 교육, 커뮤니티, 일자리로 구분할 수 있고, 각 사업별 참여자는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해오다가, 2020년 이후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정책에 따라 참여자 수가 유지 또는 감소함.
- 전체 캠퍼스 이용자 또한 2016년 52,329명에서 2019년 356,915명으로 약 6배 증가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19 이후 2019년 대비 1/3수준으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음

〈표 1-2〉 연도별 캠퍼스 이용자 및 사업참여자 현황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상담	6,948	18,550	22,910	27,685	18,895	23,017	
교육	4,706	9,714	12,673	11,622	11,819	17,022	
커뮤니티	1,247	1,814	2,812	3,211	1,778	2,257	
일자리	보람	472	553	825	806	1,067	2,188
	경력	30	1,221	1,752	1,502	1,059	1,179
	인턴	-	-	-	174	316	314
	전체	502	1,774	2,577	2,482	2,442	3,681
캠퍼스 이용자	52,329	163,456	288,881	356,915	130,183	163,802	

-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자가 감소하고, 프로그램 위주의 캠퍼스 운영으로 인해 이용자의 욕구 기반 운영인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
 -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용자가 감소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발생하고, 새로운 캠퍼스 개관(북부캠퍼스 2020년 10월 개관)이후에도 아직까지 이용자의 규모가 회복 되지 못하고 있음.
 - 한편, 50플러스 캠퍼스가 주요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다보니, 과연 중장년 세대의 ‘갈 곳이 없다’는 욕구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북부, 남부, 서부, 중부 등 4개 캠퍼스의 중장년 이용자와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욕구가 무엇인지 재차 점검하고, 캠퍼스 운영 실무자 등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캠퍼스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각 캠퍼스 중장년 이용자 및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공간에 대한 욕구를 재차 점검하고, 캠퍼스 운영 실무자의 의견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캠퍼스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캠퍼스가 실질적으로 중장년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들의 공간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전략을 도출하고 장기적인 운영계획 수립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연구의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이에 따른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음.
 - 공공공간에 대한 이론적 검토 및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운영실태 분석.
 - 서울시 증장년 캠퍼스 이용 및 미이용자 대상 실태조사 및 인터뷰 실시 및 분석.
 -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활성화 방안을 제시.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이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음.

〈표 1-3〉 연구내용 및 방법

영역	연구내용	연구방법
공공공간 이론적 검토 및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운영실태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공간에 대한 이론적 검토 • 상담, 교육, 일, 커뮤니티 등 50플러스 캠퍼스 운영 실태 분석 	문헌연구
서울시 중장년 캠퍼스 이용자 및 미이용자 등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태조사) 1,000명 규모 중장년 캠퍼스 이용자 및 미이용자 실태조사를 통해 주요 욕구 도출 • (인터뷰) 캠퍼스 운영 실무자, 관계자, 중장년 캠퍼스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FGI 실시 	실태조사 및 통계분석, 인터뷰(FGI)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활성화 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GI)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활성화 방안 전문가 의견 수렴 • 현황분석, 실태조사 및 인터뷰 등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운영 활성화 방안 제시 	전문가 자문회의

○ 공공공간에 대한 이론적 검토 및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운영실태 분석

- (문헌연구) 공공공간에 대한 이론적 검토
- 상담, 교육, 일, 커뮤니티 등 50플러스 캠퍼스 운영 실태 분석

○ 서울시 중장년 캠퍼스 이용자 및 미이용자 등 실태조사

- (실태조사) 1,000명 규모 중장년 캠퍼스 이용자 및 미이용자 실태조사를 통해 주요 욕구 도출
- (인터뷰) 캠퍼스 운영 실무자, 관계자, 중장년 캠퍼스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함으로써 캠퍼스 활성화 방안 도출

○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활성화 방안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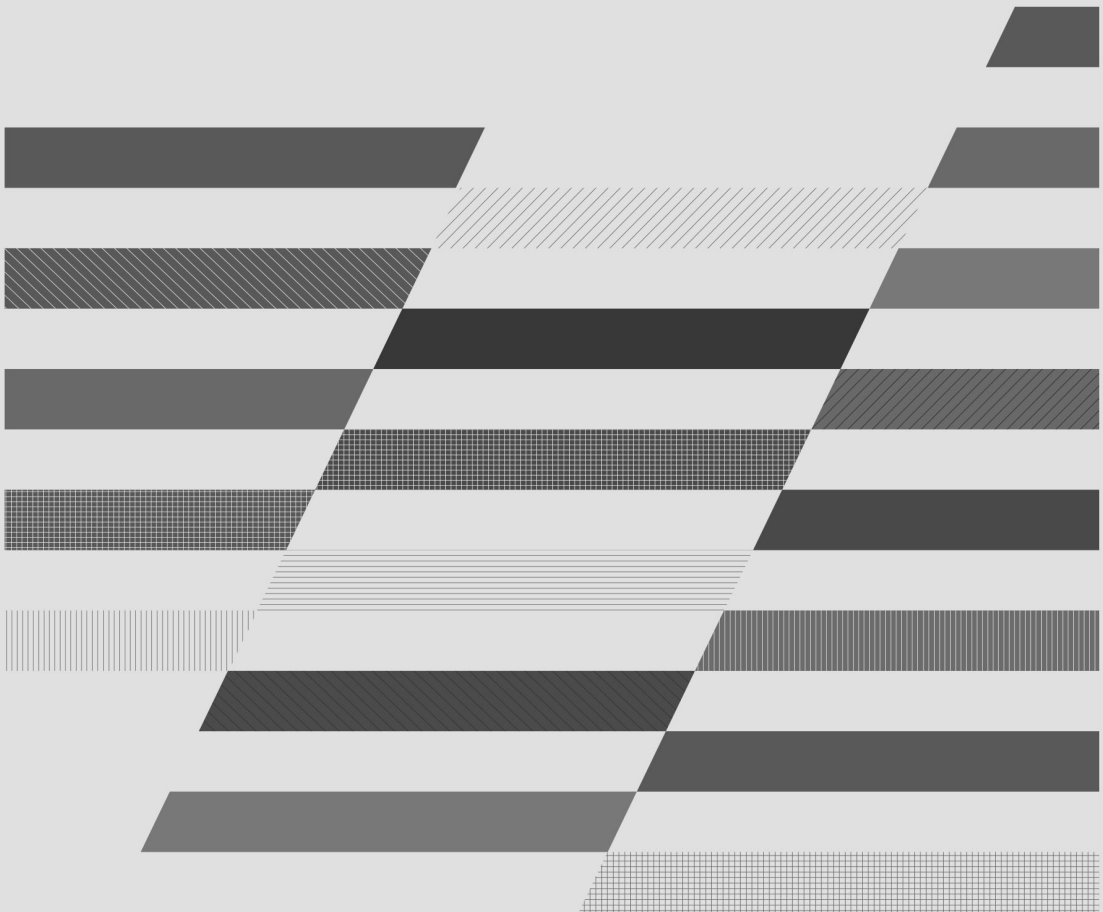
- (FGI)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활성화 방안 전문가 의견 수렴
- 현황분석, 실태조사 및 인터뷰 등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운영 활성화 방안 제시



제 2 장



공공공간에 대한 이론적 배경



제2장

공공공간에 대한 이론적 배경

제1절 공공공간과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1. 공공공간의 개념

- 공공공간(public space)은 공공(公共)과 공간(空間)의 합성어로서 성별, 나이, 민족, 인종, 사회적·경제적 지위와는 무관하게 모든 시민이 접근 가능한 공간을 의미함(백승경외, 2009).
 - 공공과 공간의 합성어인 공공공간은 공공성을 내포한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음(조은길, 2009). 공공(public)은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것’으로 공공성(公共性)은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을 의미함(국립국어원, 2022).
 - 공공성 개념의 근원은 공동성의 의미를 내포하는데, 영역 또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통한 이익이 소수에 의해 독점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분배된다는 의미를 지님.
- 공공공간(public space)은 하버마스의 공공영역(public domain)이 공간적으로 표현되는 물리적 장소이며, 사회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공적 공간임.
 - 공공공간은 물리적인 실체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반면, 공공영역은 이념적, 추상적 공간을 포괄하는 개념임.
 - 공공영역은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다양한 행위, 활동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서 유지될 수 있고, 정의 내려질 수 있는 개념임(어정연, 2011).

- 공공공간을 조성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삶의 터전으로서 '장소'를 만드는 것으로, 공간을 구성하는 물리적인 대상 뿐 아니라 공간특성을 결정짓는 다양한 요소를 대상으로 함.
 - 즉, 공공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은 단순한 장소를 넘어서 공간의 용도, 교통, 문화 등과 같은 공간특성을 결정짓는 요소를 고려해야 함.
- 공공공간은 시민들의 업무, 이동, 문화 공간이며, 개방되어 열려있는 공간으로 편익과 이익을 제공하고 다양한 활동과 교류를 촉발 시키는 공간임.
 - 공공공간의 위치, 소유, 관리, 유형에 따라 점적인 공간, 선적인 공간, 면적인 공간, 면과 선이 결합된 공간으로 구분함. 점적인 공간은 공개공지, 소규모 공원 등이 예가 될 수 있으며, 선적인 공간은 가로길, 녹도 등이 있고, 면적인 공간은 공원, 광장 등이 있으며, 면과 선이 결합된 공간은 수변공간이 있음(이상민 외, 2008).
 - 공공공간을 도시공간의 역할에 따라 분류하면, 인공적·자연적인 대상 분류, 기능에 따른 분류, 토지이용 패턴에 따른 분류, 지리적 여건의 위계에 따른 유형 등으로 분류하기도 함(Wang, 2002).
 - 공공공간은 공원, 광장, 거리 등 공익적 사용을 추구하기도 하고 학교, 도서관, 극장 등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도 함.
- 기존 연구에서 공공공간의 정의를 살펴보면 크게 5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먼저 내부 또는 외부 등 물리적 공간에 초점을 둔 정의가 있음(Krier, 1979; 브로트 벤트, 1990; 서울시, 2008). 공공공간을 물리적 공간으로 보고 정의한 것으로 외부 또는 내부로 공간을 구분하거나 제한하여 정의가 이루어짐.
 - 둘째, 공공의 권위에 의한 조성에 초점을 둔 정의가 있음(Glazer, 1987; Jackson, 1987).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공공의 권위에 의해 이루어졌을 경우 공공공간으로 보는 시각임.
 - 셋째, 사적 및 공적 공간을 구분한 정의가 있음(정석, 1994; 장경철 외, 2006). 공간을 사적 및 공적 공간으로 구분하여 비록 사적 공간이라 할지라도 개방되어있는 공간은 공공공간으로 보는 관점임.
 - 개방에 초점을 둔 정의가 있음(김세용, 1997; 김기환, 2005; 이창훈, 2005; 김영익, 2006; 이상민 외, 2007; Cabe, 2007). '열린 공간' 즉 모두에게 개방되어있는 공간을 공공공간으로 정의함.
 - 관계가 이뤄지는 곳에 초점을 둔 정의가 있음(서정숙, 2001; 유진선 외, 2008). 공공 공간은 공간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벗어나 사람이 만나고 관계가 이루어지며,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보는 관점임.

〈표 2-1〉 공공공간의 다양한 정의

구분		개념
외부 또는 내부 공간	Krier, 1979	건물 내부의 중정부에서 건물과 건물 사이, 넓게는 자연으로 둘러싸인 공터까지도 공공공간으로 정의
	브로트벤트, 1990	도시 공공공간의 유형을 역사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건물 내부의 아트리움을 공공공간의 한 유형으로 분류
	서울시, 2008	공중의 사용을 목적으로 옥외 및 준 옥외 영역에서 조성되어 공중에게 개방되는 공간
공공의 권위	Glazer, 1987	공공의 권위에 의해 조성, 유지되는 공간으로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 가능한 공간
	Jackson, 1987	조성과정에 있어서, 사업주체로서 공공부문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공공의 권위에 의해 조성, 유지되는 공간으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 가능한 곳
사적 및 공적 구분	정석, 1994	공공이 소유한 공공공간과 민간이 소유한 공개공지를 구분하고 이를 통합한 것이 도시의 시민 공간
	장경철 외, 2006	시민을 위해 조성되고 개방된 공적, 사적 공간 모두를 포함함
개방	김세용, 1997	공공에게 24시간 개방되고, 자유롭게 출입이 허용되며, 공공에 의해서 공급되지 않았더라도 공공을 위해서 시설된 개방공간
	김기환, 2005	개인의 사적인 공간에 대비되는 것으로, 사용적인 측면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공용의 의미
	이창훈, 2005	'열린 공간'의 의미로서 불특정 다수가 상시 출입 가능할 수 있는 공간
	김영익, 2006	시민에게 개방된 공간으로 개념 정립
	이상민 외, 2007	공공에게 개방되어 열려있고, 공공에게 편익과 이익을 제공하며 다양한 활동과 커뮤니케이션을 촉발시키는 공간
	Cabe, 2007	누구나 접근이 가능,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출입할 수 있는 공간
관계	서정숙, 2001	직·간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일종의 경험을 제공하며 실제적으로 인간과 타인의 관계를 체험하게 되는 장소성
	유진선 외, 2008	사람들이 일상적인 생활이나 일정한 축제 과정에서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일종의 기능적이고 의식적인 행위를 수행하는 일반적 장소

출처: 이은엽 외.(2012). 「도시내 공공공간의 활용실태 조사 및 효율성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국가 건축정책위원회, p27 참조.

- 공공공간에 대한 개념과 기존 연구들의 정의를 종합해 볼 때 공공공간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으로서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경험하고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정의할 수 있음.

2. 공공공간으로서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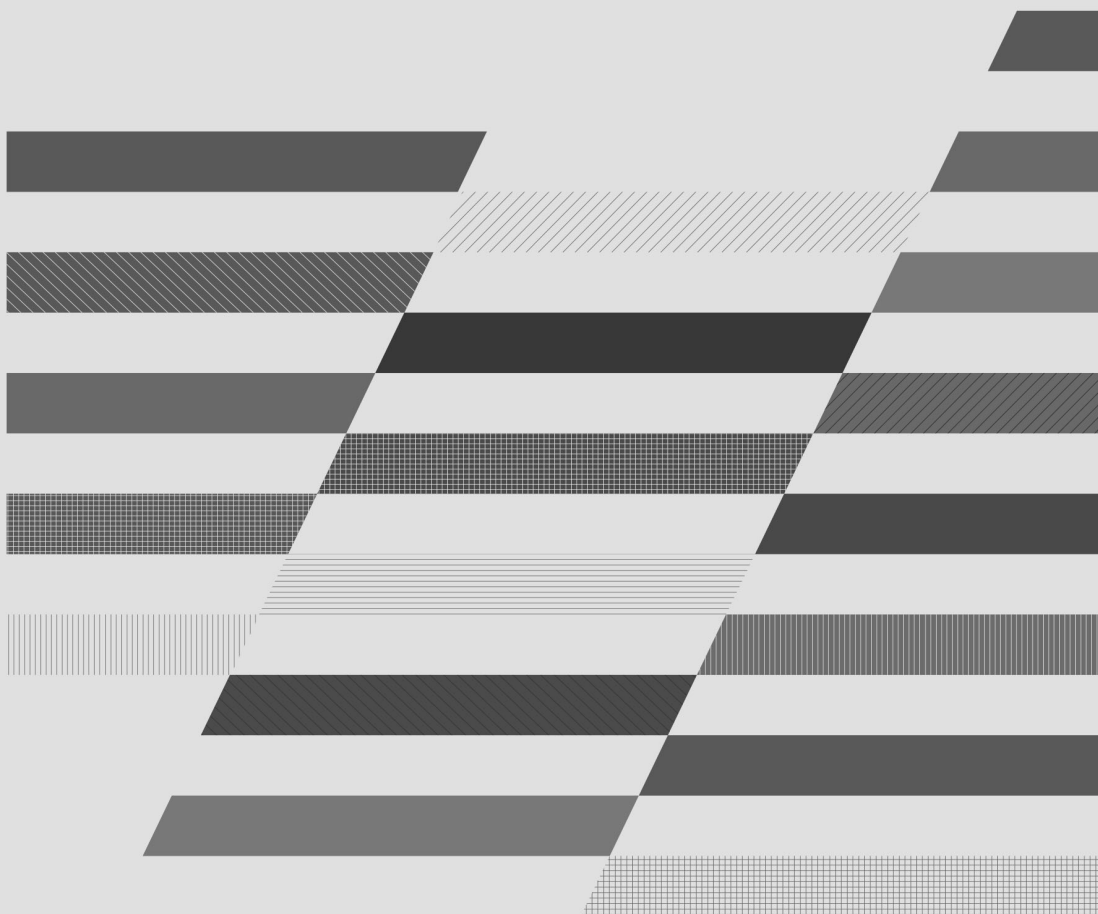
-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서울시 장년층의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재단의 사업) 제1항 50플러스 캠퍼스 운영’에 따라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음.
 - 재단의 주요 역할은 서울시 만 50~64세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50플러스캠퍼스라는 공간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고 있음.
 - 재단의 주요사업은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사업)’에 따라 교육지원사업,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건강증진 지원사업, 문화·여가 지원사업 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 일자리, 교육, 커뮤니티, 상담 등 크게 4개 영역을 통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는 공공시설이라는 측면에서 서울시 장년층 시민들을 위한 개방된 공간으로서 시민들이 모여 만나고 소통하며 관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이를 통해 커뮤니티 등 공동체가 형성되고 결속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
 - 교육, 상담, 일자리 등을 위해 캠퍼스를 방문한 시민들은 또래집단을 형성하고 커뮤니티 활동으로 나아가는 등 캠퍼스 내에서 다양한 공동체가 형성되고 결속행위가 이루어지며, 창업, 활동 등과 같이 사회참여, 일자리창출 등으로 이어지고 있음.
 - 따라서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는 중장년, 나아가 서울시민을 위한 공공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는 공공공간으로서 사업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공간 이외의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미비하다고 볼 수 있음.
 - 캠퍼스별 사업공간은 교육, 활동, 일, 상담 등 사업 목적에 맞게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외공간의 활용은 각 캠퍼스별로 상이하며, 일관적인 전략이나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음.
- 공공공간으로서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에 대해 사업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공간으로서의 기능에 대한 역할을 재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캠퍼스 이용의 주요 대상자인 중장년을 대상으로 공간의 활용방안을 탐색해볼 필요성이 있음.



제 3 장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현황 분석



제3장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현황 분석

제1절 캠퍼스 현황 분석

1. 캠퍼스 개요

-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현재 서부, 중부, 남부, 북부 등 총 4개의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공간의 활용내역은 <표3-1>과 같음.
 - 서부캠퍼스는 4개의 캠퍼스 중 유일하게 독자적으로 건물을 활용하고 있으며, 총 5개 층으로 지하1층을 제외한 지상 4개 층을 활용하고 있음. 1층은 상담센터, 모두의 부엌, 카페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2층은 교육실, 사무실, 인생학교 교무실(회의실), 3층은 학생회관, 모임방, 공유사무실, 모데레이터실, 일자리실험실 등이 위치해 있고 4층은 강당, 마루교실, 스튜디오가 배치되어 있음.
 - 중부캠퍼스는 여러 기관 및 단체들이 입주해 있는 서울복지타운 건물의 4개 층을 활용하고 있음. 지하1층은 목공실, 음악실, 마루교실, 동아리실, 학습지원단실이 배치되어 있고, 1층은 50+서재, 공유사무실, 모두의 부엌, 2층은 상담센터, 사무실, 4층은 강당, 대강의실, 컨설턴트실, 교실(2개소), 방석교실 등이 배치되어 있음.
 - 남부캠퍼스는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건물에 입주해 있으며, 총 7개 층 중 5개 층을 활용하고 있음. 지하1층은 스튜디오, 마루교실, 동아리실, 상상제작소, 커뮤니티지원단실, 여직원휴게실, 1층은 상담센터, 공유사무실(6), 북카페, 2층은 교육실, 컨설턴트실, 학습지원단실, 사무실, 3층은 교육실, 컴퓨터실, 4층은 대강당 및 창고가 위치해 있음.
 - 북부캠퍼스는 가장 늦게 개관한 캠퍼스로 창동아우르네 전체 면적의 약 35.4%를 활용하고 있음. 지하1층은 공방, 마루교실, 모두의 부엌, 모두의 식당, 교실홍열, 모두의 강당, 모임방이 있고, 1층은 50+상담센터, 1:1상담실, 공유공간 힘나 및 신나, 사무실, 2층은 학생회관, 교육실(4), 미디어실(2), 컴퓨터실, 3층은 연수원(12)이 있음.

〈표 3-1〉 서울시50플러스재단 캠퍼스 현황(2021.12월 기준)

구 분	서부캠퍼스	중부캠퍼스	남부캠퍼스	북부캠퍼스	
개관일자	2016.05.02.	2017.03.06.	2018.03.05.	2020.11.27.	
위 치	은평구 통일로 62길7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구로구 오류로 36-25	도봉구 마들로13길 84	
규 모 (연면적)	3,956㎡ 지하1/지상4층	4,509㎡ 지하1/지상1층, 2층, 4층 ※ 재단본부: 3층(826㎡포함)	5,714㎡ 지하 3층~지상 4층	6,280.62㎡ 지하1층~지상3층 ※ 창동아우르네 전체 연면적(17,744.60㎡) 대비 35.4%	
대지면적	8,943.2㎡	28,534㎡	19,730㎡	7,663㎡	
층별 용도	4층	강당, 마루교실, 스튜디오	강당, 대강의실, 컨설턴트실, 교실4-1, 4-2, 방석교실	대강당, 창고	-
	3층	학생회관, 모임방, 공유사무실, 모니터레이터실, 일자리실형실	재단본부 사무실, 컴퓨터실, 미디어실	교육실, 컴퓨터실	연수원 (4인실 5개, 2인실 7개)
	2층	교육실, 사무실, 인생학교교무실	사무실, 상담센터	교육실, 컨설턴트실, 학습지원단실, 사무실	학생회관, 교육실(4), 미디어실(2), 컴퓨터실
	1층	상담센터, 모두의 부엌, 카페	50+서재, 공유사무실, 모두의 부엌	상담센터, 공유사무실(6), 북카페	상담센터, 1:1상담실, 공유공간 힘나·신나, 캠퍼스 운영사무실
	지하 1층	기계실	목공실, 음악실, 마루교실, 동아리실, 학습지원단실	스튜디오, 마루교실, 동아리실, 상상제작소, 커뮤니티지원단실, 여직원휴게실	공방, 마루교실, 모두의 부엌, 모두의 식당, 교실 휴열, 모두의 강당, 모임방 등
	지하 2층	-	-	수영장, 강사실, 기계실 등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관리운영)	주차장, 기계실 등
	지하 3층	-	-	수영장 기계실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관리운영)	-

○ 2021년 기준 캠퍼스 이용자는 총 164,802명으로 중부캠퍼스 61,363명, 서부캠퍼스 48,658명, 남부캠퍼스 33,194명, 북부캠퍼스 21,587명 순으로 나타남.

〈표 3-2〉 캠퍼스 이용자 현황(2021년 기준)

(단위: 명)

총 계	서부캠퍼스	중부캠퍼스	남부캠퍼스	북부캠퍼스
164,802(100.0%)	48,658(29.5%)	61,363(37.2%)	33,194(20.1%)	21,587(13.1%)

제2절 캠퍼스별 이용자 분석

- 서울시50플러스의 사업은 일자리, 교육, 상담, 활동 영역으로 구분되며 각 영역별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음(서울시50플러스재단, 2022).
 - 일자리 영역은 50+일모델 발굴, 사회공헌일자리, 경력전환·취업, 창업·창직 등으로 구성됨. 50+일자리 발굴은 공공·민간 파트너십, 50+일모델 발굴·운영, 세미나 및 포럼 등으로 구성되며, 사회공헌일자리는 서울시50+보람일자리사업이 있음. 경력전환·취업은 50+적합일자리, 신중년커리어프로젝트 굿잡5060, 서울50+(뉴딜) 인턴십, 양코르전직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며, 창업·창직은 공유사무실, 점프업5060 사업이 있음.
 - 교육은 각 캠퍼스별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의 초점은 자기이해, 신진로탐색, 역량개발, 사회참여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2021년 기준 총 709개 과정이 개설되었으며, 캠퍼스별로는 서부 162개 과정, 중부 167개 과정, 남부 206개 과정, 북부 174개 과정이 운영되었음.
 - 상담은 방문, 전화, 찾아가는 상담, 캠퍼스활용백서 등 일반상담과 컨설턴트 1대1 상담으로 구분되어짐. 상담의 주요 영역은 일, 재무, 사회공헌, 관계, 가족, 여가, 건강 등으로 구분되어짐.
 - 활동은 50+커뮤니티 사업, 50+강사활동 지원사업 등 당사자 활동역량 지원사업과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으로 구분됨. 2021년 기준 당사자 역량활동 지원사업은 커뮤니티 283개 운영, 169명 강사 발굴 및 145개 교육과정 운영 등을 달성했으며, 사회공헌 활동은 20개 사업이 운영되었음.
- 캠퍼스 이용자는 교육, 상담, 일, 활동 등 사업별 참여자와 행사참여 및 공간 이용자로 구분되어지며, 캠퍼스별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연 이용인원은 교육, 상담, 일, 활동 등 각 사업참여자와 공간이용자를 월별로 취합한 결과로서 캠퍼스에 직접 방문하여 이용을 한 사람들이 대상임.
 - 일반에서 50+자치공간, 카페이용자, 모두의 부엌, 50+서재 이용자 등은 각 캠퍼스별 공간구조 차이에 따라 이용현황 집계 방식이 상이함.

1. 서부캠퍼스

- 2021년도 서부캠퍼스 총 이용인원은 48,658명으로 전체대비 29.5%로 나타났으며, 서부캠퍼스 이용자 비중은 일반(48.8%), 교육(31.5%), 일(11.0%), 상담(4.7%), 활동(2.0%), 행사(1.8%) 순이었음.
 - 서부캠퍼스의 이용자의 약 절반인 23,756명은 '50+자치공간 및 카페이용자'였으며, 교육, 상담, 활동 등 캠퍼스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이외의 공간을 이용한 사람들의 총합이라 할 수 있음.
 - 교육은 31.5%를 차지하였으며, 15,487명으로 2021년 교육참여자 4,316명의 약 4배에 가까운 수치임. 이는 월 단위로 교육을 참석한 인원을 종합하여 조사하는 구조에 기인함.
 - 일은 11.0%로 5,306명이었고, 거주하며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공유사무실(4,323명)이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나머지는 일자리 교육 및 행사 참여자였음.
 - 상담은 전화상담을 제외한 모든 상담 받은 사람을 의미하며, 2,283명으로 나타남.
 - 활동(2.0%) 및 행사(1.8%)는 미비한 수치를 나타냄.

〈표 3-3〉 서부캠퍼스 이용자 현황(2021년)

구 분		명	비율	비고
교육	교육과정(연인원)	15,487	31.8%	31.8%
상담	상담서비스(전화상담 제외)	2,283	4.7%	4.7%
일	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연인원)	543	1.1%	11.0%
	일자리사업 수시·정기 행사	420	0.9%	
	공유사무실(연인원)	4,343	8.9%	
활동	50+자원봉사단	283	0.6%	2.0%
	커뮤니티플러스	661	1.4%	
행사	기획프로그램참여자	877	1.8%	1.8%
일반	50+자치공간 및 카페이용자	23,756	48.8%	48.8%
	대관이용자	0	0.0%	
	기관방문현황(벤치마킹)	5	0.0%	
월 이용현황(명)		48,658	100.0%	100.0%

2. 중부캠퍼스

- 중부캠퍼스 총 이용인원은 61,363명으로 전체 캠퍼스 중 가장 높은 수치(37.2%)를 보였으며, 일반(57.3%), 교육(24.7%), 일(5.2%), 상담(5.1%), 행사(4.5%), 활동(3.2%) 순으로 나타났음.
 - 일반은 '50+자치공간 및 카페이용자(35,146명, 57.3%)' 였음.
 - 교육은 15,150명(24.7%)으로 2021년 교육참여자 4,530명의 약 4배로 나타남.
 - 일은 3,160명으로 공유사무실(1,276명, 2.1%), 행사(957명, 1.6%), 교육(927명, 1.5%) 순으로 나타남.
 - 상담은 전화상담을 제외하고 3,157명으로 5.1%였음
 - 행사는 기획프로그램 참여자로 2,780명(4.5%)이었음.
 - 활동은 1948명(3.2%)이었으며, 봉사단 2.2%, 커뮤니티플러스 1.0%로 나타남.

〈표 3-4〉 중부캠퍼스 이용자 현황(2021년)

구 분		계	비율	비고
교육	교육과정(연인원)	15,150	24.7%	24.7%
상담	상담서비스(전화상담 제외)	3,157	5.1%	5.1%
일	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연인원)	927	1.5%	5.2%
	일자리사업 수시·정기 행사	957	1.6%	
	공유사무실(연인원)	1,276	2.1%	
활동	50+자원봉사단	1,326	2.2%	3.2%
	커뮤니티플러스	622	1.0%	
행사	기획프로그램참여자	2,780	4.5%	4.5%
일반	50+자치공간 및 카페이용자	35,146	57.3%	57.3%
	대관이용자	0	0.0%	
	기관방문현황(벤치마킹)	22	0.0%	
월 이용현황(명)		61,363	100.0%	100.0%

3. 남부캠퍼스

- 남부캠퍼스 총 이용인원은 33,194명으로 전체이용자의 20.1%를 차지하였으며, 교육이 46.4%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일반(19.5%), 일(14.8%), 행사(8.3%), 상담(8.1%), 활동(3.1%) 순으로 나타남.
 - 교육은 15,386명으로 2021년 교육참여자 4,193명의 약 4배로 나타남.
 - 일반은 50+자치공간 및 카페이용자가 19.4%로 주요 이용자였음.
 - 일은 공유사무실(6.1%), 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5.1%), 일자리사업 행사(3.6%)로 나타남.
 - 행사는 기획프로그램 참여자로 2,745명(8.3%)이었음.
 - 상담은 전화상담을 제외하고 8.1%(2,683명)이었음.
 - 활동은 봉사단이 386명(1.2%), 커뮤니티플러스 630명(1.9%)로 나타남.

〈표 3-5〉 남부캠퍼스 이용자 현황(2021년)

구 분		계	비율	비고
교육	교육과정(연인원)	15,386	46.4%	46.4%
상담	상담서비스(전화상담 제외)	2,683	8.1%	8.1%
일	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연인원)	1,702	5.1%	14.8%
	일자리사업 수시·정기 행사	1,187	3.6%	
	공유사무실(연인원)	2,022	6.1%	
활동	50+자원봉사단	386	1.2%	3.1%
	커뮤니티플러스	630	1.9%	
행사	기획프로그램참여자	2,745	8.3%	8.3%
일반	50+자치공간 및 카페이용자	6,429	19.4%	19.5%
	대관이용자	0	0.0%	
	기관방문현황(벤치마킹)	24	0.1%	
월 이용현황(명)		33,194	100.0%	100.0%

4. 북부캠퍼스

- 북부캠퍼스 총 이용인원은 21,587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13.1%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북부캠퍼스 총 이용인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영역은 교육(59.7%)이었으며, 일(19.7%), 상담(9.3%), 일반(5.4%), 행사(3.2%), 활동(2.6%) 순으로 나타남.
 - 교육은 총 12,898명으로 2021년 총 교육참여자 3,858명의 약 4배로 나타남.
 - 일은 공유사무실 2,380명(11.0%), 일자리사업 행사 참여자 1,011명(4.7%), 일자리사업 참여자 865명(4.0%) 등이었음.
 - 상담은 전화상담을 제외하고 2,009명이었음.
 - 일반은 50+자치공간 및 카페이용자 1,128명(5.2%)이 주였음.
 - 행사는 기획프로그램 참여자 699명이었음.
 - 활동은 커뮤니티플러스 344명(1.6%), 자원봉사단 210명(1.0%)였음.

〈표 3-6〉 북부캠퍼스 이용자 현황(2021년)

구 분		계	비율	비고
교육	교육과정(연인원)	12,898	59.7%	59.7%
상담	상담서비스(전화상담 제외)	2,009	9.3%	9.3%
일	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연인원)	865	4.0%	19.7%
	일자리사업 수시·정기 행사	1,011	4.7%	
	공유사무실(연인원)	2,380	11.0%	
활동	50+자원봉사단	210	1.0%	2.6%
	커뮤니티플러스	344	1.6%	
행사	기획프로그램참여자	699	3.2%	3.2%
일반	50+자치공간 및 카페이용자	1,128	5.2%	5.4%
	대관이용자	0	0.0%	
	기관방문현황(벤치마킹)	43	0.2%	
월 이용현황(명)		21,587	100.0%	100.0%

제3절 종합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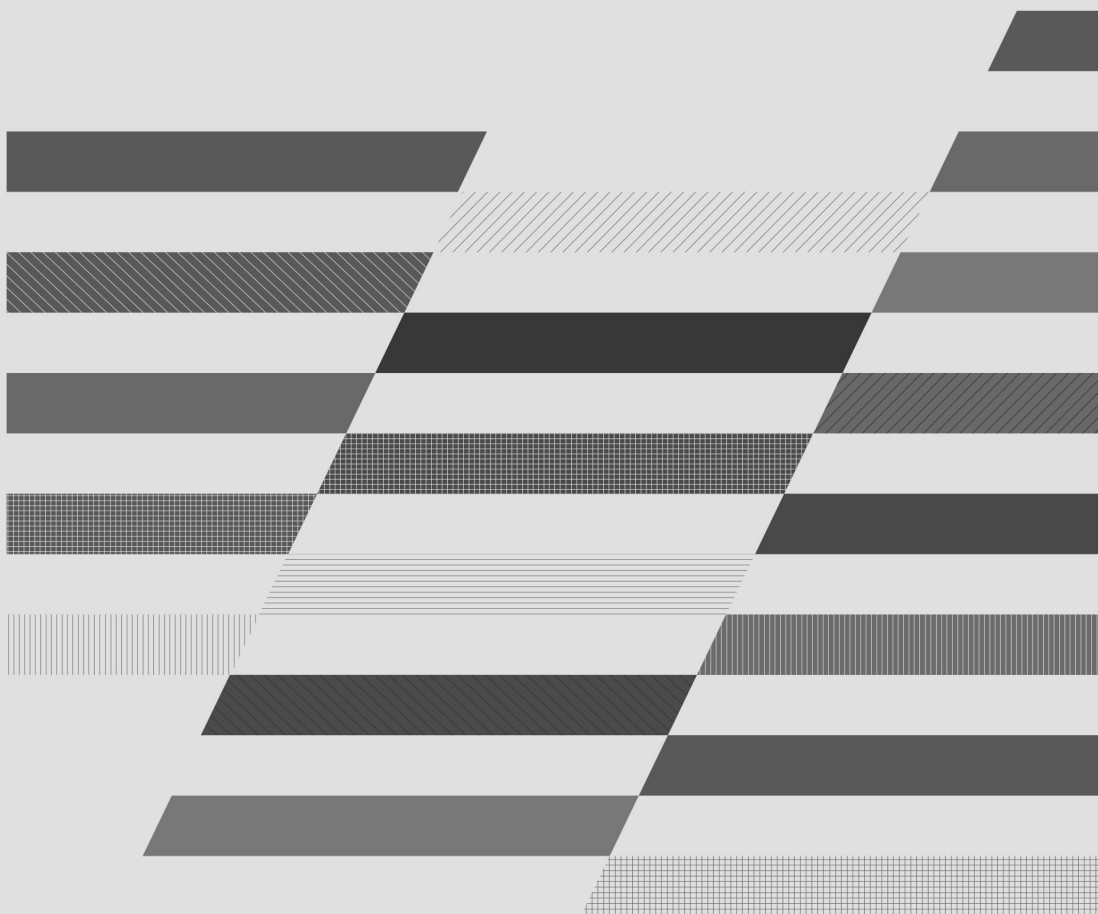
- 재단 캠퍼스는 지역별 공간의 크기, 지리적 위치, 공간 소유 주체, 공간의 구성 등 상이한 여건을 가지고 있어, 공간을 활성화를 위한 노력 또한 캠퍼스별로 차별화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음.
 - 공간 규모적 측면에서 북부캠퍼스가 가장 컸으며, 남부, 중부, 서부 순으로 나타났고 중부, 남부, 북부는 타기관과 공간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반면 서부는 독립공간을 활용하고 있었음.
 - 지리적 측면에서 서부는 불광동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 인접지역에 있고 서울혁신파크 등 대규모 공공시설과 인접해 있는 등 접근성이 높은 곳이었음. 북부 캠퍼스는 창동아우르네 일자리 지원시설 내 입주해 있어 유사사업과의 연계점이 존재 하며, 창동역과 인접하여 접근성이 좋은 여건이라 볼 수 있음.
 - 반면, 남부캠퍼스, 중부캠퍼스는 오르막길을 올라야 접근할 수 있다는 점, 대중교통과 도보로 15분 이상 거리가 있다는 점 등 접근성 면에서 열악한 상황임.
 - 공간의 구성은 2021년 기준 4~5개 층을 활용하여 일, 활동, 커뮤니티, 상담 등 사업 공간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남부, 서부, 중부캠퍼스는 1층에 커피숍이 위치해 있었음.
- 2021년 캠퍼스 이용자는 총 164,802명으로 서부와 중부캠퍼스 이용자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영역은 '50+자치공간 및 카페이용자'였고 남부 및 북부캠퍼스는 '교육과정'으로 나타나 중장년의 주요이용방식 특성이 나타남.
 - 서부와 중부캠퍼스의 주요 이용인원은 '50+자치공간 및 카페이용자'와 '교육과정'으로 나타났고 남부캠퍼스는 '교육과정'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0+자치공간 및 카페 이용자'이었으며, 북부캠퍼스는 '교육과정' 다음으로 '공유사무실' 순이었음.
 - 즉, 캠퍼스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이용자가 교육을 목적으로 방문하며, 만남과 대화를 위해 자치공간과 카페 등을 이용하고 있음이 확인됨.
- 한편, 캠퍼스 이용자를 조사하는 방식시 사업참여자, 공간이용자 등 명확한 이용자를 확인하기 위한 통일된 방안 마련 필요.
 - 조사분석과정에서 캠퍼스별 이용자 수를 조사하는 방식에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고, 카페 및 자치공간 이용자의 경우 명확히 50플러스캠퍼스를 이용하기 위해 방문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불명확하여 이에 대한 절차 마련이 필요함.



제 4 장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실태분석



제4장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실태분석

제1절 조사 개요

1. 조사목적

- 서울시 중장년의 공간에 대한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현재 중장년을 위한 서울시50플러스 캠퍼스 공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갈 곳 없음’에 대한 중장년의 욕구를 분석함에 있어서 단순히 공간에 대한 욕구뿐만 아니라, 신체건강, 정신건강, 일 경험, 삶의 질 등 다양한 시각에서 중장년의 특성 살펴보고 욕구를 조사함으로써 공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특히, 캠퍼스 이용경험을 가진 중장년과 아닌 중장년의 욕구를 비교함으로써 다각적 시각에서 공간 개선을 위한 자료 형성.
 - 기존 캠퍼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중장년의 욕구와 이용 경험이 없는 중장년의 욕구를 비교함으로써 향후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공간 활용방안 계획수립 시 활용 가능한 근거자료 축적.

2. 조사설계

- 조사 대상은 2022년 10월 시점 기준 서울시 거주하는 만 40세 ~ 만 69세(1952.10. ~1982.10.)의 중장년 중 캠퍼스 이용자 및 미이용자로 구성.
 - 표본 규모는 총 1,000명으로 이용자 476명, 미이용자 524명이 포함됨.

〈표 4-1〉 연구의 설계

구분	개념
조사 대상	서울시 거주 중장년(만40~만69세)으로 캠퍼스 이용 및 미이용자
조사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대면 설문조사
조사 지역	서울시 전역
조사 기간	2022.09.26.~2022.10.14.(3주간)
목표 조사 표본	1,000명
최종 조사 표본	1,000명

○ 설문은 활동영역(일, 퇴직, 활동), 건강·주거·관계 및 삶의 질, 공간 욕구 및 캠퍼스 이용 경험으로 구성(〈표 4-2〉).

- 활동영역은 일과 퇴직경험, 향후 일에 대한 욕구, 동호회, 친목단체 활동 등을 조사.
- 건강·주거·관계 및 삶의 질 영역은 삶의 전반적인 실태와 욕구를 조사.
- 공간 욕구 및 캠퍼스 이용 경험 영역은 중장년의 공간 욕구를 조사.

〈표 4-2〉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실태조사 설문 구성

구분	개념
A. 활동	경제활동여부, 일 내용, 종사상지위, 정부지원일자리여부, 주평균 근무일수 및 근무 시간, 월평균 소득, 근로기간, 일하는 이유, 일만족도, 일만족하지 않는 이유, 퇴직 경험여부, 가장 오래한 일의 종사상 지위, 가장 오래한 일 종사기간, 일을 그만둔 이유, 앞으로 하고 싶은 일, 가교 일자리 여부, 일 욕구, 일을 하고 싶은 이유, 희망 근로시간, 희망 월 소득, 지난 1년간 취업활동, 활동 참여 여부 및 참여빈도, 취미·여가활동 이유, 취미·여가활동 방식, 취미·여가활동 어려운 점, 자원봉사 여부, 자원봉사 분야, 자원봉사 종류, 자원봉사 빈도 및 시간, 자원봉사 경로, 활동의 우선순위, 활동 욕구, 교육 참여 여부, 참여 교육 영역, 교육 참여 경로, 교육 참여 횟수 및 시간
B. 건강, 주거, 관계 및 삶의 질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여부, 만성질환 개수, 우울척도, 주택 만족도, 주거환경 만족도, 친밀인간관계 여부, 친밀인간관계 빈도, 주관적 삶의 만족도(건강, 경제, 관계, 활동, 삶 전반), 자살생각여부, 자살생각 이유
C. 공간 욕구 및 캠퍼스 이용 경험	활동공간 충분성, 활동공간 만족도, 가장 필요한 공간, 공간이용 중요요소, 캠퍼스 이용여부, 주로 이용캠퍼스, 캠퍼스 이용 횟수 및 시간, 주로 이용하는 캠퍼스 공간, 캠퍼스 이용 공간 만족도, 캠퍼스 공간 이용 불만족 이유, 캠퍼스 공간 개선 사항, 캠퍼스에서 가장 필요한 공간, 캠퍼스 사업 만족도, 캠퍼스 가장 필요 사업
응답자 특성	최종학력, 혼인상태, 종교여부, 가구형태, 가구원 구성, 소득형태

- 분석은 크게 두 파트로 캠퍼스 이용 여부에 따른 분석 및 이용 캠퍼스별 분석으로 구성.
 - 첫째, 캠퍼스 이용자 및 미이용자를 구분하여 두 집단의 영역별 특성 차이 분석
 - 둘째, 캠퍼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주 이용 캠퍼스별(중부, 남부, 북부, 서부) 공간 욕구 및 만족도 차이 분석.

제2절 분석 결과

1. 응답자 일반적 특성

○ 조사에 포함된 표본은 총 1,000명으로 일반적 특성은 <표 4-3>과 같음.

<표 4-3>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이용자 실태조사 응답자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이용자(명)	미이용자(명)
성별	남성	438	43.8	189	249
	여성	562	56.2	287	275
연령	40대	212	21.2	40	172
	50대	395	39.5	299	195
	60대	393	39.3	235	157
거주권역	도심권	104	10.4	54	50
	서북권	202	20.2	112	90
	서남권	306	30.6	154	152
	동북권	298	29.8	145	154
	동남권	90	9.0	48	42
최종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1	1.1	2	9
	고등학교 졸업	271	27.1	35	236
	2,3년제 졸업	142	14.2	40	102
	4년제 졸업	412	41.2	239	173
	대학원 졸업 이상	164	16.4	160	4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34	3.4	32	2
	100만원 ~ 149만원	32	3.2	28	4
	150만원 ~ 199만원	45	4.5	32	13
	200만원 ~ 249만원	73	7.3	51	22
	250만원 ~ 299만원	61	6.1	41	20
	300만원 ~ 399만원	144	14.4	73	71
	400만원 ~ 499만원	169	16.9	63	106
	500만원 ~ 599만원	199	19.9	50	149
	600만원 ~ 699만원	127	12.7	38	89
	700만원 ~ 799만원	51	5.1	19	32
	800만원 이상	65	6.5	49	16

-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이용 경험이 있는 집단과 이용 경험이 없는 집단의 특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두 집단의 공간욕구를 비교해 보고자 함.
- 또한,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주로 이용하는 캠퍼스별로 집단을 구성하여 네 개 캠퍼스 이용자들의 특성과 공간욕구 및 공간만족도를 비교하고자 함.

2. 캠퍼스 이용 여부에 따른 집단별 특성 및 욕구

1) 일반적 특성

- 캠퍼스 이용집단은 여성 비중이 60.3%로 여성 비중이 더 높으며 미이용자 집단도 여성 비중이 높으나 남성 규모와 큰 차이 없음.
 - 여성이 남성보다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4〉 캠퍼스 이용집단별 성별 구성 (명, %)

구분	미이용자		이용자	
	명	%	명	%
남성	249	47.5	189	39.7
여성	275	52.5	287	60.3
합계	524	100.0	476	100.0

- 캠퍼스 이용자 집단은 미이용자 집단에 비해 연령대가 높음.
 - 이용자 집단의 평균 연령은 58.3세, 미이용자 집단의 평균 연령은 54.2세로 이용자 집단의 평균 연령이 4세가량 더 높음.
 - 이용자 집단은 60대가 가장 많고 40대는 10% 미만인 반면 미이용자 집단은 50대가 가장 많고 60대 비중이 가장 낮음.

〈표 4-5〉 캠퍼스 이용집단별 연령집단 구성 (명, %)

구분	미이용자		이용자	
	명	%	명	%
평균 연령	54.2		58.3	
40대	172	32.8	40	8.4
50대	195	37.2	200	42.0
60대	157	30.0	236	49.6
합계	524	100.0	476	100.0

- 가구 소득 수준의 구간별 분포는 이용자와 미이용자 집단에서 다르게 나타남.
 - 미이용자 집단은 500~700만원 구간과 300~500만원 구간에 약 80%가 집중됨.
 - 이용자 집단의 소득분포는 300~500만원 구간을 기준으로 300만원 미만과 500만원 이상 구간에 비교적 고르게 구성됨.

〈표 4-6〉 캠퍼스 이용집단별 가구소득 구성 (명, %)

구분	미이용자		이용자	
	명	%	명	%
100만원 미만	2	0.4	32	6.7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17	3.2	60	12.6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42	8.0	92	19.3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177	33.8	136	28.6
5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238	45.4	88	18.5
700만원 이상	48	9.2	68	14.3
합계	524	100.0	476	100.0

2) 활동 특성

- 캠퍼스 이용집단별로 소득활동, 단체활동, 학습 활동, 자원봉사 활동, 취미·여가활동 특성 차이를 살펴봄.
- 소득활동 특성을 보면, 캠퍼스 미이용집단과 이용집단 모두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미이용집단은 77.7%, 이용집단은 71.4%가 현재 일을 하고 있어 캠퍼스 이용집단별 소득활동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4-7〉 캠퍼스 이용집단별 소득활동 여부 (명, %)

구분	미이용자		이용자	
	명	%	명	%
현재 일하고 있음	407	77.7	340	71.4
현재 일하고 있지 않음	117	22.3	136	28.6
합계	524	100.0	476	100.0

- 동호회, 친목단체, 정치사회단체 등 단체활동은 이용집단이 미이용집단에 비해 적극적으로 참여.
 - 이용집단의 70% 이상이 동호회와 친목단체에 참여하고 있고 미이용집단은 주로 친목단체를 위주로 단체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정치사회단체는 두 집단 모두에서 참여도가 가장 낮았음.
 - 단체활동 참여 빈도는 두 집단에서 유사한데 동호회, 친목단체는 월 1회, 정치사회단체는 월 1회 미만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8〉 캠퍼스 이용집단별 단체활동 특성 (명, %)

구분	미이용자		이용자	
	명	%	명	%
동호회	104	19.9	347	72.9
친목단체	361	68.9	350	73.5
정치사회단체	2	0.4	40	8.4

*주: 중복 응답이 가능한 문항으로 비율은 전체 (미)이용자 수 대비 비율을 나타냄

- 캠퍼스 이용집단과 미이용집단은 자원봉사 활동 특성도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용자가 미이용자보다 자원봉사 활동 경험이 더 많음.
 - 미이용자의 83.4%는 자원봉사를 해본 적이 없으나 이용자의 80% 이상은 현재 자원봉사를 하고 있거나 해 본 경험이 있는 자들로 구성됨.

〈표 4-9〉 캠퍼스 이용집단별 자원봉사활동 여부 (명, %)

구분	미이용자		이용자	
	명	%	명	%
현재 자원봉사 중	17	3.2	203	42.7
한 적은 있으나 현재는 하지 않음	70	13.4	235	49.4
해본 적 없음	437	83.4	38	7.9
합계	524	100.0	476	100.0

- 자원봉사 빈도와 회당 시간 모두 이용자 집단에서 길게 나타났는데,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미이용자들은 평균 주당 1.9회, 회당 2.7시간의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이용자들은 평균 주당 2.9회, 회당 2.9시간의 자원봉사에 참여함.

〈표 4-10〉 캠퍼스 이용집단별 자원봉사활동 월 평균 빈도 및 회당 평균 시간

구분	미이용자		이용자	
	빈도(회)	시간	빈도(회)	시간
평균	1.9	2.7	2.9	2.9
사례수	87		438	

- 자원봉사 장소나 기관도 이용집단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미이용집단은 주로 종교기관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반면 이용자 집단은 주로 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함.

〈표 4-11〉 캠퍼스 이용집단별 자원봉사활동 참여 기관 (명, %)

구분	미이용자		이용자	
연계 기관 없음	13	14.9	75	17.1
종교기관	24	27.6	52	11.9
복지기관	11	12.6	129	29.5
시·군·구청/자원봉사센터	16	18.4	69	15.8
민간단체, 비영리단체(NGO)	21	24.1	81	18.5
기타	2	2.3	32	7.3
사례수	87		438	

- 학습 활동 특성은 이용집단별로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데 캠퍼스 미이용집단은 대부분 학습 활동 경험이 없고 이용집단은 대부분 학습 활동 경험이 있음.
 -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가 교육 사업과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용자 대부분은 학습 활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임.

〈표 4-12〉 캠퍼스 이용집단별 학습활동 경험 여부 (명, %)

구분	미이용자		이용자	
학습 활동 경험 있음	47	8.97	467	98.11
학습 활동 경험 없음	477	91.03	9	1.89
합계	524	100.0	476	100.0

- 학습활동 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학습 활동 빈도를 분석한 결과 미이용자의 학습 활동 빈도가 이용자보다 1회 정도 높았고 회당 참여 시간은 이용자가 2.8시간으로 미이용자 대비 1시간 정도 길게 나타남.

〈표 4-13〉 캠퍼스 이용집단별 학습활동 월 평균 빈도 및 회당 평균 시간

구분	미이용자	이용자
학습활동 빈도 (월)	5.4회	4.4회
참여 시간 (회당)	1.8시간	2.8시간
사례수	47	467

- 학습활동 장소는 두 집단에서 매우 다르게 나타났는데 미이용자는 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 주로 학습하는 반면 이용자의 대부분은 서울시50플러스 캠퍼스에서 학습활동을 경험함.
- 이는 향후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가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물리적인 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함.

〈표 4-14〉 캠퍼스 이용집단별 학습활동 공간 (명, %)

구분	미이용자		이용자	
(종합)사회복지관	2	4.3	9	1.9
시·군·구민회관/주민센터	11	23.4	13	2.8
50플러스 캠퍼스/50플러스센터	5	10.6	339	72.6
초·중·고·대학교	0	0.0	7	1.5
공공 문화센터	4	8.5	17	3.6
사설 문화센터	2	4.3	2	0.4
매체	23	48.9	64	13.7
기타	0	0.0	16	3.4
사례수	47		467	

○ 취미·여가활동 특성은 캠퍼스 이용집단별 사회적 연결망 형태를 보여줌.

- 미이용자는 주로 친구들과 배우자, 이용자는 주로 동호회 회원이나 혼자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이용자들이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등 단체활동을 통한 네트워킹을 활용

하는 반면 미이용자는 새로운 관계맺기 보다는 기존에 알고 지내던 관계를 활용함을 알 수 있음.

〈표 4-15〉 캠퍼스 이용집단별 취미·여가활동을 함께 하는 사람 (명, %)

구분	미이용자		이용자	
혼자	66	12.6	120	25.2
배우자	98	18.7	65	13.7
배우자 외 가족	34	6.5	9	1.9
친구들	306	58.4	100	21.0
동호회 회원	20	3.8	182	38.2
합계	524	100.0	476	100.0

- 취미·여가활동의 어려운 점으로 캠퍼스 미이용집단은 시간 부족, 이용집단은 경제적 부담을 꼽았으며 그밖에 여가 정보와 프로그램 부족, 여가 공간 부족도 취미·여가 활동이 어려운 이유 상위를 차지함.
-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가 단지 여가를 위한 공간 제공뿐만 아니라 여가활동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여가를 함께 즐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며 여가활동에 대한 경험이 없더라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복합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미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음.

〈표 4-16〉 캠퍼스 이용집단별 취미·여가활동 시 어려운 점 (명, %)

구분	미이용자		이용자	
시간 부족	171	32.6	100	21.0
경제적 부담	112	21.4	106	22.3
여가 정보 및 프로그램 부족	122	23.3	78	16.4
여가 시설 등 공간 부족	86	16.4	78	16.4
여가를 함께 즐길 사람 부재	14	2.7	41	8.6
경험 부족	10.0	1.9	29.0	6.1
체력이나 건강이 좋지 않음	9.0	1.7	15.0	3.2
기타	0	0.0	29	6.1
합계	524	100.0	476	100.0

- 중고령자는 삶에서 경제활동과 취미·여가활동의 중요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음
 - 일하는 사람 비중이 좀 더 높았던 미이용집단에서는 경제활동이 38.6%, 취미·여가 활동이 31.1%로 상위를 차지함.
 - 이용자 집단은 취미·여가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35.9%로 가장 높았고 30.9%가 경제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중장년에게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으며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가 중장년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주로 학습 활동 및 취미·여가활동에 주목할 것인지, 취·창업 지원과 더불어 경제활동 지원공간으로서의 기능도 함께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

〈표 4-17〉 캠퍼스 이용집단별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 (명, %)

구분	미이용자		이용자	
자원봉사 활동	24	4.6	47	9.9
학습 활동	20	3.8	60	12.6
취미·여가 활동	163	31.1	171	35.9
종교 활동	22	4.2	37	7.8
정치사회 (단체) 활동	0	0.0	2	0.4
친목 (단체) 활동	93	17.8	7	1.5
경제활동	202	38.6	147	30.9
기타	0	0.0	5	1.1
합계	524	100.0	476	100.0

- 다양한 활동을 대상으로 활동 욕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취미·여가 활동 및 종교 활동 욕구는 이용집단별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자원봉사, 학습, 정치사회 활동 및 친목 활동 욕구는 이용집단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발견되었음.
 - 미이용집단에서 가장 욕구가 높게 나타난 활동은 취미·여가 활동(4.3점)이었고 자원 봉사, 학습, 종교 활동 모두 3.0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이용자 집단 역시 취미·여가 활동에 대한 욕구가 4.3점으로 가장 높았고 학습 활동(4.1점), 자원봉사 활동(3.6점) 순으로 높은 욕구가 확인됨.
 - 두 집단 모두 취미·여가 활동 욕구가 높게 나타났으므로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는 향후 중장년의 취미·여가 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간 및 사업 발굴이 필요함.

〈표 4-18〉 캠퍼스 이용집단별 활동별 향후 참여 희망 정도

구분	미이용자	이용자	t
자원봉사 활동	3.0	3.6	9.377***
학습 활동	3.0	4.1	19.377***
취미·여가 활동	4.3	4.3	0.108
종교 활동	3.0	3.0	0.144
정치사회 (단체) 활동	2.3	2.1	-2.240**
친목 (단체) 활동	2.2	2.5	-4.763***
사례수	524	476	

* 5점 척도의 평균 점수를 나타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참여 희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3) 건강·관계 및 삶의 질 특성

- 주관적 건강상태를 5점 척도로 평가했을 때 캠퍼스 미이용집단의 평균 점수는 3.8점, 캠퍼스 이용집단의 평균 점수는 3.6점으로 미이용자 집단이 스스로 건강상태를 더 좋다고 평가하고 있음.
 - 미이용자 집단의 평균 연령이 이용자 집단보다 4세 가량 낮아 주관적 건강상태가 다를 수 있음.

〈표 4-19〉 캠퍼스 이용집단별 건강상태 비교

구분	미이용자	이용자	t
평소 건강 상태	3.8	3.6	3.692***
사례수	524	476	

* 5점 척도의 평균 점수를 나타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음을 의미함

- 우울감은 일상에서 느끼는 우울감 관련 15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해당되는 문항이 많을수록 우울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미이용자 집단과 이용집단 모두 우울감은 높지 않았으나 두 집단 중에서는 이용집단의 우울감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우울감 최소 점수는 0점, 최고 점수는 15점일 때 미이용집단의 우울감 평균 점수는 1.4점, 이용집단의 평균 점수는 2.1점으로 두 집단 모두 우울감은 낮았지만 이용집단의 평균이 미이용집단의 평균보다 0.7점으로 높았음.

〈표 4-20〉 캠퍼스 이용집단별 우울감 비교

구분	미이용자	이용자	t
우울감	1.4	2.1	-4.127***
사례수	524	476	

*15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음을 의미함 (최대: 15점, 최소: 0점)

○ 삶의 다양한 영역별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건강 상태, 경제 상태, 배우자와의 관계는 캠퍼스 미이용집단의 만족도가 높았고 사회·여가·문화 활동 만족도는 캠퍼스 이용집단에서 높게 나타남.

- 건강 상태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이용집단의 평균 연령이 더 낮고 주관적 건강 상태를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 상태의 만족도도 미이용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음.
- 캠퍼스 이용집단이 미이용집단보다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은 영역은 사회·여가·문화 활동으로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이용이 중장년의 여가문화 활동을 활성화하고 만족도를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4-21〉 캠퍼스 이용집단별 영역별 삶의 만족도 비교

구분	미이용자	이용자	t
건강 상태	3.8	3.5	4.713***
경제 상태	3.4	3.2	4.404***
배우자와의 관계	3.9	3.6	4.079***
자녀와의 관계	3.9	3.9	1.397
사회·여가·문화 활동	3.4	3.6	-3.749***
친구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3.6	3.6	-0.052
전반적 삶	3.6	3.7	-1.273
사례수	524	476	

* 5점 척도의 평균 점수를 나타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 배우자와의 관계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됨 (미이용자 498명, 이용자 394명 포함)

* 자녀와의 관계는 자녀가 있는 경우만 해당되며 (미이용자 508명, 이용자 426명 포함)

4) 공간 욕구 특성

- 거주지 근처 공간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 결과 미이용집단이 거주지 근처 활동공간의 충분성을 더 높게 평가했고 활동공간에 대한 만족도도 더 높았음.
 - 캠퍼스 미이용집단이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를 이용해 본 적 없는 이유로,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가 아니더라도 이미 거주지 근처에 주로 활동하고 이용하는 공간이 있어 다른 공간에 대한 욕구가 크지 않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혹은, 캠퍼스 미이용집단은 기존에 이용하던 종교기관이나 민간기관, 온라인 매체 대비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가 갖는 공간적, 내용적 장점이나 차별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음.

〈표 4-22〉 캠퍼스 이용집단별 거주지 근처 공간 인식 비교

구분	미이용자	이용자	t
거주지 근처 활동공간 충분성	3.5	3.1	5.600***
거주지 근처 활동공간 만족도	3.5	3.2	4.978***
사례수	524	476	

* 5점 척도의 평균 점수를 나타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충분성 및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 중장년은 다양한 목적의 공간 중 특히 커뮤니티 활동공간에 대한 욕구가 크고 사회공헌 활동 지원공간, 일자리 지원공간에 대한 욕구도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표 4-23〉을 보면 중장년의 물리적 공간 욕구와 동시에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알 수 있는데 커뮤니티 활동과 사회공헌활동, 취업 욕구가 높음.
 - 이용집단은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에서 상담,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고 있어서 미이용집단에 비해 해당 욕구는 낮게 나타났으나 일자리 지원공간에 대한 욕구는 이용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남.
 - 캠퍼스 미이용집단의 캠퍼스 이용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 커뮤니티 활동 및 사회공헌 활동, 상담 활동 등 캠퍼스가 제공하고 있는 공간 및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높이는 동시에 이용집단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표 4-23〉 캠퍼스 이용집단별 공간욕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간 (명, %)

구분	미이용자		이용자	
	명	%	명	%
교육공간	46	8.8	50	10.5
상담공간	41	7.8	2	0.4
커뮤니티 활동공간	229	43.7	179	37.6
사회공헌활동 지원공간	101	19.3	67	14.1
일자리(취업, 창업 등) 지원공간	100	19.1	146	30.7
독서 및 스터디 공간	7	1.3	28	5.9
기타	0	0.0	4	0.8
합계	524	100.0	476	100.0

○ 중장년이 공간 이용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접근성과 활용성으로 이는 캠퍼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남.

- 대중교통으로 접근할 수 있거나 적절한 주차장을 확보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활동기회, 경험과 체험, 다양한 지원시설이 마련하여 활용성이 높일 때 중장년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표 4-24〉 캠퍼스 이용집단별 공간욕구: 공간 이용 시 고려 요인(1순위) (명, %)

구분	미이용자		이용자	
	명	%	명	%
접근성	225	42.9	258	54.2
활용성	133	25.4	133	27.9
기능성	49	9.4	9	1.9
쾌적성	60	11.5	24	5.0
안전성	22	4.2	4	0.8
지속가능성	20	3.8	32	6.7
커뮤니티	15	2.9	16	3.4
합계	524	100.0	476	100.0

3. 캠퍼스별 이용자 공간 경험 및 욕구

1) 주 이용 캠퍼스에 따른 집단 구분 및 집단별 일반적 특성

- 캠퍼스 이용 경험자만을 대상으로 주 이용 캠퍼스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 집단별 캠퍼스 공간 경험 및 욕구에 대해 분석함.
 - 조사에 포함된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이용 유경험자는 총 476명이며 주로 이용하는 캠퍼스는 중부 114명, 남부 114명, 북부 138명, 서부 110명으로 캠퍼스별 조사 표본은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함.

〈표 4-25〉 주 이용 캠퍼스별 이용자 분포

구분	중부	남부	북부	서부	합계
이용자 수 (명)	114	114	138	110	476
비율 (%)	24.0	24.0	29.0	23.0	100.0

- 캠퍼스 이용 빈도의 전체 평균은 주당 1.62회, 회당 2.59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서부 캠퍼스의 이용 빈도와 이용 시간이 가장 길고 남부캠퍼스의 이용 빈도와 이용 시간이 가장 짧았음.
 - 서부캠퍼스의 이용 빈도는 주당 1.73회, 이용 시간은 2.82시간이며 남부캠퍼스의 이용 빈도는 1.55회로 가장 적었으며 이용 기간은 2.32시간으로 나타남.
 - 주 이용 캠퍼스에 따라 이용 빈도와 횟수에 약간의 차이는 보이지만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았음.

〈표 4-26〉 캠퍼스별 이용 빈도 및 시간

구분	중부	남부	북부	서부	전체
이용 빈도 (회)	1.60	1.55	1.63	1.73	1.62
이용 시간 (시간)	2.79	2.32	2.45	2.82	2.59
사례 수	114	114	138	110	476

*주: 주당(weekly) 평균 이용 빈도 및 회당 이용 시간을 의미함

- 이용자들이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에서 주로 이용하는 공간은 교육공간과 커뮤니티 활동공간이며 독서 및 스터디 공간과 상담공간 이용률은 낮았음.

- 네 개 캠퍼스에서 모두 교육공간 이용률이 가장 높은 가운데 남부캠퍼스에서 교육공간 이용률이 77.2%로 가장 높았고 서부캠퍼스의 교육공간 이용률은 59.1%로 네 캠퍼스 중 가장 낮았음.
- 서부캠퍼스는 네 캠퍼스 중 커뮤니티 활동공간 이용률이 가장 높았고 남부캠퍼스에서 커뮤니티 활동공간 이용률은 10.5%로 네 캠퍼스 중 가장 낮게 나타남.
- 앞서 중장년의 사회공헌 활동 지원공간과 일자리 지원공간 욕구도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공간에 대한 이용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아 향후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가 사회공헌 활동공간 및 일자리 지원공간으로서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을 엿볼 수 있음.

〈표 4-27〉 캠퍼스별 주 이용 공간 (%)

구분	중부	남부	북부	서부	전체
교육공간	76.3	77.2	68.1	59.1	70.2
상담공간	2.6	3.5	1.5	4.6	2.9
커뮤니티 활동공간	13.2	10.5	11.6	22.7	14.3
사회공헌활동 지원공간	2.6	2.6	5.8	0.9	3.2
일자리 지원공간	3.5	5.3	10.9	8.2	7.1
독서 및 스터디 공간	0.9	0.0	0.7	2.7	1.1
기타	0.9	0.9	1.5	1.8	1.3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를 이용하는 중장년은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에서 이용한 공간에 대한 만족도를 5점 만점에 3.95점으로 평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네 캠퍼스 중 서부캠퍼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음.

- 서부와 북부캠퍼스의 공간만족도는 각각 4.10점, 4.09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고 중부와 남부는 각각 3.77점, 3.82점으로 만족도가 평균보다 낮았으나 대체적으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표 4-28〉 캠퍼스별 이용 만족도

구분	중부	남부	북부	서부	전체
만족도	3.77	3.82	4.09	4.10	3.95
사례 수	114	114	138	110	476

* 5점 척도의 평균 점수를 나타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 캠퍼스 공간에 불만족한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중부캠퍼스에서 많았으며 이용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 그 밖에 공간의 낮은 접근성, 낮은 편의성, 공간 관리 부족 및 서비스 및 정보의 부족에 대한 응답도 있었음.

〈표 4-29〉 캠퍼스별 이용 불만족 이유 (명)

구분	중부	남부	북부	서부	전체
공간의 낮은 접근성	3	-	-	-	3
공간의 낮은 편의성	1	2	-	-	3
이용 공간 부족	4	-	-	-	4
공간 관리 부족	-	1	1	-	2
서비스 및 정보 부족	2	-	-	1	3
기타	1	-	-	-	1
사례 수	11	3	1	1	16

- 캠퍼스 이용에 대체적으로 만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캠퍼스 공간 활성화를 위한 개선 사항에 대해 질문한 결과 서비스 및 정보의 다양화와 자율공간 확대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고 캠퍼스별 응답 경향이 유사하게 나타남.
-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는 향후 서비스 및 제공 정보를 다양화하고 중장년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늘려나갈 필요가 있음.

〈표 4-30〉 캠퍼스 공간 활성화를 위한 개선 요구 사항 (%)

구분	중부	남부	북부	서부	전체
이동 수단 마련	17.5	16.2	9.5	7.3	12.4
이용 절차 간소화	6.8	7.2	7.3	11.0	8.0
자율공간 확대	20.4	19.8	17.5	27.5	21.1
공간 관리 효율화	10.7	9.9	10.2	7.3	9.6
서비스 및 정보 다양화	38.8	41.4	49.6	44.0	43.9
기타	5.8	5.4	5.8	2.8	5.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캠퍼스 이용자의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공간 욕구를 조사한 결과 교육공간, 커뮤니티 활동공간, 일자리 지원공간 세 가지의 공간 욕구가 매우 크게 나타남.
 - 이는 앞서 중장년의 일반적인 공간 욕구와 유사한 결과로 서울시50플러스는 중장년을 위한 교육 서비스 및 공간 제공, 커뮤니티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및 공간 제공, 일자리 지원 서비스 및 공간 제공 측면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미이용자는 커뮤니티 활동공간>상담공간>교육공간 순의 공간 욕구를 보이고 있어 이용자와 차이가 나타나며 미이용자의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활동의 활성화 및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함.

〈표 4-31〉 캠퍼스별 이용 공간 욕구 (%)

구분	중부	남부	북부	서부	미이용자
교육공간	25.4	37.7	30.4	30.9	17.4
상담공간	2.6	0.9	2.2	1.8	18.9
커뮤니티 활동공간	29.8	21.9	22.5	24.6	34.7
사회공헌활동 지원공간	13.2	4.4	7.3	9.1	12.4
일자리 지원공간	20.2	28.1	29.7	24.6	14.3
독서 및 스터디 공간	8.8	6.1	6.5	9.1	2.3
기타	0.0	0.9	1.5	0.0	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의 여러 사업 중 중장년이 가장 필요성이 높다고 평가한 사업은 캠퍼스 이용자는 교육 사업, 미이용자는 커뮤니티 활동/공간 지원사업으로 공간 욕구와 유사하게 나타남.
 -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욕구와 공간에서 행하는 활동과 내용, 사업에 대한 욕구는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활성화는 공간과 활동에 대한 복합적인 고려를 통해 이뤄질 필요가 있고, 미이용자의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신규 진입을 위한 방안과 미이용자의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이용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구분되어 실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표 4-32〉 캠퍼스별 사업 필요성 인식

구분	중부	남부	북부	서부	미이용자
교육 사업	4.55	4.52	4.49	4.51	4.03
상담서비스 사업	4.00	3.78	4.02	3.95	4.03
커뮤니티 활동/공간 지원사업	4.32	4.04	4.22	4.24	4.24
사회공헌활동 사업	4.17	4.16	4.17	4.28	4.12
일자리 지원사업	4.40	4.39	4.47	4.18	4.20
사례 수	114	114	138	110	524

* 5점 척도의 평균 점수를 나타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필요성이 높음을 의미

제3절 종합 및 시사점

- 이 장에서는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공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40~69세 중장년을 대상으로 공간 욕구를 파악함.
 -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이용자 및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각 집단별 특성 및 공간 욕구를 파악하고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주로 이용하는 캠퍼스별 공간 경험, 만족도 및 욕구를 파악함.
- 캠퍼스 이용집단과 미이용집단은 단체활동, 학습활동, 취미·여가활동 및 공간 욕구 측면에서 모두 상이한 특성을 보임.
 - 활동 측면에서 캠퍼스 이용집단은 미이용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더욱 적극적인 특성을 보였는데 친목단체, 동호회, 자원봉사, 학습활동 및 여가활동 등 모두 이용집단이 미이용집단에 비해 활발하게 하고 있음.
 - 학습 활동의 경우 이용집단은 대부분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를 활용하는 반면 미이용집단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매체를 주로 활용했는데, 향후 메타버스 등을 활용하여 미이용집단이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를 체험하고 캠퍼스에서 제공하는 학습 활동과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 중장년은 삶에서 경제활동 및 여가활동의 중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공간 욕구와 프로그램(사업) 욕구에서도 두 활동의 중요성이 높게 도출되어 향후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및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공간 및 콘텐츠 증진을 고려할 필요 있음.
 - 한편, 거주지 근처 공간에 대한 욕구를 분석한 결과 미이용집단이 이용집단에 비해 대체적으로 거주지 근처 공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미 거주지 근처 공간 욕구가 높은 캠퍼스 미이용자들의 캠퍼스 이용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가 공간적, 내용적 측면에서 다른 공간과의 차별성이 강조되어야 함.
- 향후 캠퍼스 미이용집단의 캠퍼스 신규 진입 유인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이용집단의 공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캠퍼스 미이용집단의 캠퍼스 이용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활동 및 사회공헌 활동, 상담 활동 등 캠퍼스가 제공하는 공간 및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다른 공간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기이용집단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일자리 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욕구가 높고 만족도가 낮았던 영역의 강화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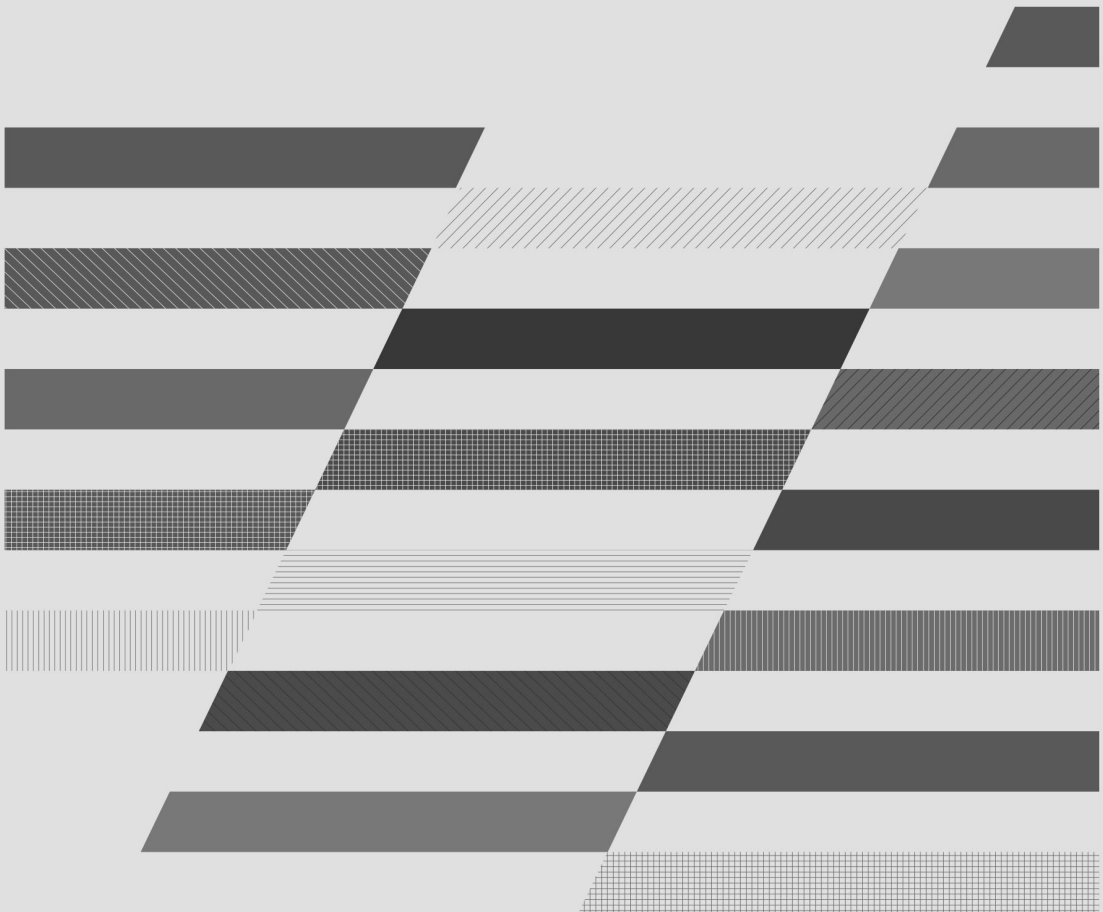
-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이용자를 주로 이용하는 캠퍼스별로 구분한 결과 접근성, 활용성, 만족도, 공간 욕구 등이 다르게 나타나 향후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개선방안 수립 시 각 캠퍼스별 위치나 공간적 특성, 캠퍼스 이용자의 특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캠퍼스 이용자들은 공간 선택 시 접근성과 활용성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는데, 캠퍼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캠퍼스별 위치와 이용자 특성을 고려해야 함.
 - 캠퍼스 위치를 바꾸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셔틀버스 등 대안을 제공하는 방안도 접근성을 높이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음. 신체적 건강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의 서비스 및 공간 이용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게 되므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셔틀버스 제공 등과 더불어 메타버스를 활용한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접근성 강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 있음.
 - 캠퍼스의 활용성은 다양한 활동기회, 경험과 체험, 다양한 지원 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함. 캠퍼스의 활용성이 공간 이용 시 중요 결정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응답자들이 캠퍼스 이용 시 서비스 및 정보가 부족하다는 의견, 향후 서비스 및 정보가 다양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욕구, 교육 및 커뮤니티 활동, 일자리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난 것과 무관하지 않음. 향후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는 중장년이 교육 콘텐츠와 여가활동 기회 및 공간을 제공하고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실태분석 결과는 캠퍼스 이용집단과 미이용집단 간 특성 차이를 확인하여 향후 캠퍼스 개선 방안 수립 시 미이용집단의 신규 유입을 높이는 방안과 이용집단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또한 중부, 남부, 서부, 북부 각 캠퍼스의 물리적 특성과 내용(사업)을 실제 이용자의 특성과 공간 경험을 반영하여 개선시킬 수 있도록 근거자료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



제 5 장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FGI



제5장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FGI

제1절 FGI 개요

1. 인터뷰 방법 및 참여자 선정

- 이 연구는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활성화 방안 탐색을 위해 질적연구방법론인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음.
- FGI는 2022년 9월 현재 캠퍼스를 이용하고 있는 중장년 17명, 캠퍼스 사업 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 16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짐.
 - 이용자 선정 기준은 (1) 2022년 현재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를 이용하고 있고, (2) 만40 이상 69세 이하 중장년이며, (3) 서울시 및 수도권 거주하는 자임.
 - 실무자 선정 기준은 (1) 현재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 캠퍼스에서 근무한 지 1년 이상인 자임.
 - 캠퍼스 실무자의 경우 상담, 일자리, 교육, 커뮤니티 등 캠퍼스의 주요 4개 사업 영역별로 1명씩 선정하였음.
 - 인터뷰 참여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각 캠퍼스별 참여자 모집 안내 및 관계자 협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인터뷰는 2022년 10월 캠퍼스별 2회씩 총 8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각 인터뷰는 약 2시간에서 3시간이 소요됨.
 - 인터뷰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의 <표 5-1>과 같음

〈표 5-1〉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FGI 참여자 특징

구분		성별	연령	담당업무 / 직업	비고	
중부 캠퍼스 (8명)	실무자 (4명)	A1	여성	-	일자리	
		A2	여성	-	상담	
		A3	여성	-	교육	
		A4	여성	-	커뮤니티	
	이용자 (4명)	a1	남성	62		
		a2	여성	57		
		a3	남성	60		
		a4	여성	57		
서부 캠퍼스 (8명)	실무자 (4명)	B1	여성	-	상담	
		B2	여성	-	교육	
		B3	여성	-	커뮤니티	
		B4	남성	-	일자리	
	이용자 (4명)	b1	여성	60		
		b2	여성	57		
		b3	여성	66		
		b4	남성	63		
남부 캠퍼스 (9명)	실무자 (4명)	C1	여성	-	교육	
		C2	여성	-	일자리	
		C3	여성	-	커뮤니티	
		C4	여성	-	일자리	
	이용자 (5명)	c1	남성	57		
		c2	여성	63		
		c3	여성	62		
		c4	여성	53		
		c5	여성	58		
북부 캠퍼스 (8명)	실무자 (4명)	D1	여성	-	상담	
		D2	여성	-	커뮤니티	
		D3	여성	-	교육	
		D4	남성	-	온라인	
	이용자 (4명)	d1	남성	64		
		d2	남성	54		
		d3	여성	53		
		d4	남성	64		

2. 자료분석 방법

- 이 연구는 캠퍼스 욕구, 캠퍼스 운영, 개선영역 등의 영역으로 구분된 반구조화된 FGI 질문지를 사용하여 인터뷰를 진행함.
 - 이용자 욕구 영역 질문은 “최근 캠퍼스에 대한 공간 관련 주요 욕구사항은 무엇입니까?”, “캠퍼스 공간은 중장년의 욕구에 적절하게 구성되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캠퍼스 운영 영역은 “현재 진행중인 사업들과 이용자의 욕구는 잘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캠퍼스 공간 차원에서 프로그램 운영시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등으로 구성되었고, 개선방안 영역은 “캠퍼스 이용이 활성화되려면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장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제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등이었음.
- 인터뷰 과정은 서면과 구두로 참여자의 동의를 받고 녹음하였으며, 녹취록을 전사하고 개방코딩(open coding)을 통해 하위개념을 도출하였으며, 축코딩(axial coding)과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분석을 실시함.

제2절 이용자 FGI 결과

- 중부캠퍼스 인터뷰 분석 결과 총 4가지의 상위개념과 9개의 하위개념이 도출됨.
- 상위개념과 하위개념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는 활동공간의 다양화’, ‘이용자가 오래 머무를 수 있는 편의 시설의 부재’ 라는 하위개념을 토대로 ‘이용자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공간 마련’의 상위개념이 도출되었음.
 - ‘욕구와 미스매칭인 교육이 많아 보임’, ‘반강제적인 전직교육의 폐해’ 라는 하위개념을 토대로 ‘교육의 다양화’라는 상위개념이 도출되었음.
 - ‘내부 인프라 확충’, ‘지리적 불리함 극복 노력 필요’, ‘협업/네트워킹이 가능한 공간으로’라는 하위개념을 토대로 ‘모일 수 있는, 모이고 싶은 50플러스캠퍼스’라는 상위개념이 도출되었음.
 - ‘일자리보다는 다양한 경험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사회적 역할을 하고 싶은 욕구’라는 하위개념을 토대로 ‘이용자 특성에 맞는 교육 및 프로그램의 편성’이라는 상위개념이 도출되었음.

〈표 5-2〉 중부캠퍼스 이용자 FGI 분석결과

상위개념	하위개념	의미
이용자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공간 마련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는 활동공간의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의 변화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보다 다양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이용자 사이에 많이 있음 • 공유오피스와 같은 개념의 협업공간이 보다 필요함
	이용자가 오래 머무를 수 있는 편의시설의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폰 충전이나 잠시 앉을 수 있는 간단한 소파조차 없음 •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시설을 어딘가에 비치해야 할 필요가 큼
교육의 다양화	욕구와 미스매칭인 교육이 많아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학, 문화여가 등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나, 언제부터인가 들을 만한 교육을 찾아보기 힘들
	반강제적인 전직교육의 폐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와 관련된 교육이 전면 배치됨에 따라서 다양성이 사라지고 일자리로만 귀결되는 것이 오히려 방향성을 상실시킴
모일 수 있는, 모이고 싶은 50플러스캠퍼스	내부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외부) 편의 시설의 문제: 카페, 도서관, 쉼터 등 • (내부) 안내데스크가 전혀 없으며 건물 구조가 복잡함
	지리적 불리함 극복 노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덕임에도 불구하고 배려가 없음 • 대중교통 이용이 필수적인데 안내가 전혀 없음 • 주차공간의 부족 문제

상위개념	하위개념	의미
	협업/네트워킹이 가능한 공간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의 업무공간과 이용자 활동/강의 공간의 총별 분리 • 교육 선후배,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림이 가능한 공용공간이 필요함 : 도서관, 카페 등
이용자 특성에 맞는 교육 및 프로그램 편성	일자리보다는 다양한 경험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50플러스캠퍼스 이용자들은 일자리 보다 삶의 의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함 • 일과 소득이 급한 사람들은 다른 사업에 참여하는 경향이 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사회적 역할을 하고 싶은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움을 토대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의미 있는 활동그룹을 만들고 싶어함 • 자원봉사나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고려를 보다 많이 해야 함

○ 서부캠퍼스 인터뷰 분석 결과 총 3가지의 상위개념과 7개의 하위개념이 도출됨.

- 상위개념과 하위개념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공유오피스를 보다 오피스답게’, ‘상답실의 공간적 내실화’ 라는 하위개념을 토대로 ‘공간의 ‘목적’ 설정과 집중적 지원’의 상위개념이 도출되었음.
- ‘코로나 이후, 비대면의 활성화’, ‘공간의 절대적 부족’, ‘공간별 운영기준(가이드라인) 필요’ 라는 하위개념을 토대로 ‘공간운영의 새로운 방향성 모색’라는 상위개념이 도출되었음.
- ‘내부 인프라 확충’, ‘지리적 불리함 극복 노력 필요’, ‘협업/네트워킹이 가능한 공간으로’라는 하위개념을 토대로 ‘모일 수 있는, 모이고 싶은 50플러스캠퍼스’라는 상위개념이 도출되었음.
- ‘두 마리 토끼 잡기: 중장년 지원의 정체성과 다른 세대와의 공존 공간’, ‘이용자들은 문화생활/(교양)교육에 주로 관심이 있음’이라는 하위개념을 토대로 ‘중장년에 대한 명확한 타겟팅’이라는 상위개념이 도출되었음.

〈표 5-3〉 서부캠퍼스 이용자 FGI 분석결과

상위개념	하위개념	의미
공간의 '목적' 설정과 집중적 지원	공유오피스를 보다 오피스답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오피스는 나름대로 심도 있는 공부나 연구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프린터 등 오피스 집기들이 필요함 무조건 공짜로 해달라는 것이 아닌, 유료결제 이용도 괜찮음 보안에 있어서도 보다 신경을 써야함
	상담실의 공간적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순한 질문을 굳이 상담실에 가야하나 라는 부담감을 느끼는 듯함. 따라서 보다 열린 공간으로서 편안하게 이용가능하도록 고민이 필요함 공간의 구조나 가구의 배치 등이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으므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함
공간운영의 새로운 방향성 모색	코로나 이후, 비대면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를 거처오며 비대면 문화가 많이 정착되었음 개인적인 성향을 보이는 이용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오프라인 모임뿐만 아니라 온라인 모임이나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한 고려가 필요함
	공간의 절대적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캠퍼스에서 교육받은 후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 방향성이 있음 하지만 커뮤니티를 만들어도 모임 공간이 부족함 카페의 경우 하나의 커뮤니티가 너무 빈번하게 이용하여 이를 조정하는 등의 어려움도 있었음
중장년에 대한 명확한 타깃팅	공간별 운영기준 (가이드라인)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성화된 공간들이 있는데, 운영에 대한 특별한 가이드라인이 없음 곳곳에 숨어있는(?) 공간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며, 특성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공간의 활용이 보다 책임 있고 적절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두 마리 토끼 잡기: 중장년 지원의 정체성과 다른 세대와의 공존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층의 경우 모든 세대가 계층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음 한편 중요한 것은 중장년을 지원하는 공간으로서 명확한 정체성과 중심성을 가지는 것임
	이용자들은 문화생활/(교양)교육 에 주로 관심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플러스캠퍼스 이용은 문화나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게 되는데, 근래들어서 자주 일을 하라고 함 보람일자리의 경우 소득이나 일의 질 수준에서 한계가 명확함. 일자리 수요와 맞아 떨어지지 않음 혁신파크 내에서 협업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서부캠퍼스의 특장점이라고 생각함

○ 남부캠퍼스 인터뷰 분석 결과 총 3가지의 상위개념과 6개의 하위개념이 도출됨.

- 상위개념과 하위개념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중장년이 주체적으로', '청년과 노년을 잇는 중장년' 라는 하위개념을 토대로 '중장년에 의한 캠퍼스 운영'의 상위개념이 도출되었음.
- '커뮤니티 우선의 공간활용 제고', '관리주체가 다름으로 나타나는 불편함'이라는 하위개념을 토대로 '공간운영의 폐쇄성'이라는 상위개념이 도출되었음.

- ‘여유롭게 즐기고 싶은 중년세대’, ‘강의자로서의 욕구’라는 하위개념을 토대로 ‘이용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 필요’라는 상위개념이 도출되었음.

〈표 5-4〉 남부캠퍼스 이용자 FGI 분석결과

상위개념	하위개념	의미
중장년에 의한 캠퍼스 운영	중장년이 주체적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년을 위한 공간이지만, 중장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세대가 주로 사업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있음 • 이용자들이 운영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구조적 노력이 필요함
	청년과 노년을 잇는 중장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의 목적에 따라 중장년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는 것이 필요함 • 한편 청년과 노년을 잇는 중간세대로서 중장년만의 공간이 되지 않는 개방적 노력이 필요함
공간운영의 폐쇄성	커뮤니티 우선의 공간활용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뮤니티라는 그룹에게 공간활용의 모든 우선권이 부여됨 • 개인이나 커뮤니티가 아닌 그룹에도 공간활용이 가능하도록 다소 오픈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커뮤니티의 활동공간도 부족한 현실임. 교육을 통해 커뮤니티 활동을 장려하나, 실제로 커뮤니티의 활동공간은 매우 부족함
	관리주체가 다름으로 나타나는 불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말이나 공휴일 사용 등에 있어서 제한되는 부분이 많으며, 특히 공유사무실은 시간과 관리의 제약이 큼 • 기자재나 물품에 있어서 교체나 수리에서도 시간이 많이 걸리며 그마저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음
이용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 필요	여유롭게 즐기고 싶은 중년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창업에 대한 강조는 이해하지만, 중년층은 더 이상 그렇게까지 일에 집중하고 싶어 하는 세대가 아님 • 특히 다양한 경험을 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임 • 일자리가 급한 사람들은 50플러스캠퍼스에 오지도 않음
	강의자로서의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은 이용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음 • 배움에 대한 욕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싶어 하는 욕구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봄

○ 북부캠퍼스 인터뷰 분석 결과 총 4가지의 상위개념과 10개의 하위개념이 도출됨.

- 상위개념과 하위개념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만족도가 높은 캠퍼스 환경’, ‘공간을 채우고 목적에 맞는 꾸밈이 필요함’이라는 하위개념을 토대로 ‘물리적 환경은 훌륭하지만 내실 있는 공간활용이 필요함’의 상위개념이 도출되었음.
-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50플러스캠퍼스로’, ‘50플러스캠퍼스 간의 같음과 다름’이라는 하위개념을 토대로 ‘내용적으로 균형 있는, 운영적으로 일관성 있는 캠퍼스 운영’이라는 상위개념이 도출되었음.

- ‘제2의 인생을 꽃피울 공간으로’, ‘커뮤니티 형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중장년을 위한 전용공간’, ‘세대간 연결의 기회를 부여하는 공간으로’라는 하위개념을 토대로 ‘플랫폼 캠퍼스’라는 상위개념이 도출되었음.
- ‘지역주민 친화적 홍보 방향’,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여가문화 공간으로’ 라는 하위 개념을 토대로 ‘홍보의 활성화’라는 상위개념이 도출되었음.

〈표 5-5〉 북부캠퍼스 이용자 FGI 분석결과

상위개념	하위개념	의미
물리적 환경은 훌륭하지만 내실 있는 공간활용이 필요함	만족도가 높은 캠퍼스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 오픈한 공간이다 보니 여러모로 쾌적함 • 공용공간이 많고 넓은 점에서 장점으로 느껴짐
	공간을 채우고 목적에 맞는 꾸밈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공간이 방치된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특히 1층이 너무 텅 비어 보임 • 각 공간별로 쓰임새가 있을 텐데 이에 맞도록 공간을 꾸미고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큼
내용적으로 균형 있고, 운영적으로 일관성 있는 캠퍼스 운영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50플러스캠퍼스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욕구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적절히 배분하고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함 • 현재 시점에서는 일자리가 너무 강조되는 측면이 있음
	50플러스캠퍼스 간의 같음과 다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의 욕구는 지역별로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 캠퍼스별로 굳이 차별화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러움 • 몇몇 프로그램은 모든 캠퍼스에서 같이 가져가야 할 부분임. 한편 차별적인 프로그램은 소수이더라도, 50+의 일반적인 욕구 대응에 큰 문제가 없을 것임
플랫폼 캠퍼스	제2의 인생을 꽃피울 공간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들 대부분은 일자리에 목을 매고 오는 것은 아님 • 인생 2막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하여 교육받고, 자신이 아는 것을 교육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욕구가 가장 큼
	커뮤니티 형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퍼스가 주도적으로 굳이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됨 • 이용자들 중에 재능기부 등이 가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여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공간과 기회를 제공한다면 더 큰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음 • 배움→커뮤니티 형성→사회적 기여로 이어지는 방향성이 중장년 세대의 주요 욕구라고 할 수 있음
	중장년을 위한 전용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별로 전용공간이 많이 있음 • 아동 돌봄시설, 청소년 공간, 노인 공간 등 많이 있으나, 중장년을 위한 시설은 여기 말고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세대간 연결의 기회를 부여하는 공간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느 세대든지 해당 세대만의 공간이 필요하지만, 다른 세대와의 교류를 간과해서는 안 됨 • 캠퍼스에서 다른 세대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와 노력이 필요함
홍보의 활성화	지역주민 친화적 홍보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퍼스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가 형성되어 있으며, 출퇴근하면서 캠퍼스 앞을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많이 있음 • 이러한 동선을 고려하여 홍보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함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여가문화 공간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퍼스는 지역주민들을 기반으로 발전하는 것이 보통임 • 지역주민들에게 단순 홍보보다는 이벤트 등을 통하여 충분히 알리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함

1. 이용자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공간 마련

1)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는 활동공간의 다양화

-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의 공간 변화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보다 다양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이용자 사이에 많이 있음
 - 공간을 이용자 욕구에 충분히 변화시키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에 비해서 다양한 성격의 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음.
 - 캠퍼스에서 교육받은 후 커뮤니티를 만드는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커뮤니티를 만들어도 모일만한 공간이 없음.
 - 카페가 운영되는 캠퍼스에서는 하나의 커뮤니티가 너무 빈번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조정해야 했음.

커뮤니티 입장에서 보면 클래스가 4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a3)

실질적으로 커뮤니티에 오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필요한데, 목공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요리 공간도 폐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a1)

- 공유오피스와 같은 개념의 협업공간이 보다 필요함
-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먼저 경험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사람들과, 처음부터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사람들 간에 협업이나 코칭 같은 것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효과가 높아질 것 같음.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 창업이나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까이에 있는 바로 선배들이죠. (a2)

오랜 기간동안 꾸준히 활동해온 단체나 그룹에 대해서는 더 발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업할 공간을 시범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a4)

○ 공간의 '목적' 설정과 집중적 지원

- 공유오피스를 보다 오피스답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공유오피스는 나름대로 심도 있는 공부나 연구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프린터 등 오피스 집기들이 필요함.
- 운영과 관련해서는 유료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또한 보안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함.

저는 공유사무실 목적에 맞게끔 방향이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는 지원들이 집중돼서 지원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b2)

최신식 그런 복합기나 아니면 본인들이 조금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예를 들어서 컬러 프린터를 충분히 제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비용을 직접 써서라도 조금 서비스들이 본인들에게 제공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으시고. (b2)

○ 상담실의 공간적 내실화

- 이용자들이 상담실 활용을 다소 어렵게 느끼는 경향이 있음.
- 현재보다 열린 공간으로서 상담실 활용이 가능하도록 고민이 필요함.
- 상담실 공간의 구조나 가구의 배치 등이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음. 심도 있는 상담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열린 상담의 공간이 구분되어 환경조성 되어야 함.

내가 명확하게 상담이라는 거를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냥 가볍게 들어오기를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b1)

컨설턴트 자리를 내담자가 앉을 수 있게 개별로 다 배치를 해놓다 보니까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해야 되나 공간만 잡아놓고 막상 그 안에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실정이고. (b3)

○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는 활동공간의 다양화’에 대한 각 캠퍼스별 의견의 차이점

- (중부) 공유오피스와 같은 개념의 관리되는 공용공간이 필요함.
- (북부) 공용공간이 넓고 쾌적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보다 쓰임새 있는 공간의 구성이 필요함.
- (서부) 공간 자체에 대한 부족감을 느끼지만, 곳곳에 잘 활용되지 않는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도록 해야 함.
- (남부)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기에도 공간이 부족함. 한편 커뮤니티 외의 그룹들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정과 배려가 필요함.

2) 이용자가 오래 머무를 수 있는 편의시설의 부재

○ 스마트폰 충전이나, 잠시 앉을 수 있는 간단한 소파조차 없음

- 공간이 잘 활용되려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편하게 있을 수 있도록 편의와 관련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는데, 현재 캠퍼스에는 그러한 준비 또는 배려가 전혀 눈에 띄지 않음.

수업을 끝나고 그다음 수업을 듣고 중간에 약간 여유 시간이 있어도 없어서 자기가 보낼 수 있는 시간이거나 아니면 심지어 휴대폰이라도 충전할 곳이 있어야 돼요 충전할 곳도 하나도 없거든요. (a4)

수강생들을 위한 마음대로 어떤 휴식 공간이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심지어 텀블러 안 가져오면 물 마시거나 물 마시기도 힘들고 커피 마시기도 힘들고 본인도 다 들고 오셔야 되니까....(a2)

- ‘이용자가 오래 머무를 수 있는 편의시설의 부재’에 대한 각 캠퍼스별 의견의 차이점
 - (중부) 잠시 앉아서 설만한 소파조차 없음.
 - (북부) 특히 1층이 너무 텅 비어 있고, 공간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느낌이 큼.

2. 교육의 다양화

1) 욕구와 미스매칭인 교육이 많아 보임

- 인문학, 문화여가 등 다양한 교육이 있었으나, 언제부터인가 들을만한 교육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음
 - 교육과 프로그램이 다양해야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러한 다양성이 사라진 것 같음.
 -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다양한 교육들이 있었으나 현재는 오히려 더 그렇지 못한 상황임.
 - 일자리 욕구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적절하게 배분하고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함. 현재 시점에서는 일자리가 과도하게 강조되는 측면이 있음.

수강생들의 어떤 선택하는 그게 그래서 사실은 강좌가 이렇게 옛날처럼 다양하지 않아요. (a2)

코로나 때는 온라인 수업도 있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걸 많이 시도했었거든요. (a1)

많은 사람들이 응답한 비율을 봤을 때 높은 비율이 일자리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자리 위주로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그럼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인문학 중심으로 했을 때는 왜 일자리 안 하냐고 불만이 없어요. (d1)

- ‘욕구와 미스매칭인 교육이 많아 보임’ 영역에 대해서는 캠퍼스별 의견의 차이가 거의 없이 대동소이하였음.

2) 반강제적인 전직 교육의 폐해

○ 하반기부터 일괄적으로 전직교육이 전면 배치되었음

- 일자리와 관련해서 서울시의 중요한 강조가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현재 캠퍼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욕구와는 거리가 멀어 보임.
-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데다가 반복적으로 들어야 하기 때문에 관심도와 참여도를 이끌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움.

보통 하반기에 수업이 굉장히 많아야 하는데, 지금은 수업이 절반정도로 줄었고 그나마 있는 수업들도 전직 교육이 다 붙다보니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일자리 교육이 너무 많이 생긴거죠. (a1)

전직 교육이 4시간짜리이다 보니까 수강생들 불만이 많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수강생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기 때문에 참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a4)

- ‘반강제적인 전직교육의 폐해’ 영역에 대해서는 캠퍼스별 의견의 차이가 거의 없이 대동소이하였음.
- 즉, 현재 서울시의 내부 방침에 따라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일자리 교육은 50플러스 캠퍼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특성이나 관심사와는 다소 멀다고 볼 수 있음. 이용자들은 기존의 인문학 교육이나 문화 관련 교육 등의 욕구를 더 강하게 가지고 있으며,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일자리 관련 교육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졌음.

3. 모일 수 있는, 모이고 싶은 50플러스캠퍼스로

1) 내부 인프라의 확충

○ 기본적인 편의시설 및 공간의 부재

- (내부 및 외부) 카페, 도서관, 쉼터 등과 같은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음.
- 내부에 안내데스크가 전혀 없는데 건물구조까지 복잡해서 처음 오는 사람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음.

1층에 카페가 1월 28일에 나갔거든요. 지금 10월까지 10개월 동안 비어있어요. (a3)

다른 캠퍼스는 들어가서 모든 컨설턴트와 커뮤니티가 있는 상담실... 다 1층에 들어가는 입구에 바로 있어요. 근데 저희는 들어와서 이분들이 와서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몰라요.
안내해 줄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a4)

○ ‘내부 인프라의 확충’에 대한 각 캠퍼스별 의견의 차이점

- (중부) 안내도나 안내데스크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함.
- (북부) 공간의 쓰임새나 목적에 맞는 가구의 배치, 적절한 시설의 구축이 필요함
- (서부) 공유오피스와 같은 공간은 ‘오피스’처럼 운영될 수 있도록 일부 유료 서비스를 시행해서라도 공간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남부) 공간 운영에 있어서(특히 공유사무실) 시간이나 관리의 제약이 크고, 기자재 교체 또는 수리에도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 불편함.

2) 지리적 불리함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도보나 대중교통, 자가 차량 이용의 모든 측면에서 애로점이 큼

- 중부캠퍼스는 언덕의 꼭대기에 있어 중장년들의 도보 접근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함. 언덕 중간에 쉼터와 같은 배려가 필요함.
- 전철역과 멀지 않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캠퍼스 건물로 가기까지 안내 표지판이나 안내하는 설명이 전혀 없음.
-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에 대한 협조 등이 필요함.

이 언덕에 개인 집을 가지고 올라오기는 쉽지 않고, 커피를 하나 들고 오기도 쉽지 않죠. (a4)

보통 다른 캠퍼스 가보니까 지하철에서 딱 나와서 이 보도블록부터 이게 발바닥 사인이 다 돼 있어요. 올라오는 입구까지 딱 다 그것만 쫓아오면 되는데 저희는 오히려 길이 더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a3)

여기 중부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주차 문제가 그래요. 차를 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님들도 차를 갖고 와도 댈 데가 없는 거예요. (a1)

- ‘지리적 불리함을 극복하려는 노력의 필요’에 대해서는 주로 중부캠퍼스에서 주로 나타났으며, 다른 캠퍼스들에서는 지리적 불리함에 대한 고민보다는 ‘홍보’와 관련된 이슈가 더 두드러졌음.

3) 협업/네트워킹이 가능한 공간으로

- 상호작용을 지원하고 발전적인 논의가 가능한 공용공간의 필요
 - 직원들이 근무하는 업무공간과 이용자가 활동 또는 강의 듣는 공간을 층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 교육 선후배나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림이 가능한 도서관이나 카페와 같은 공용공간이 필요함.

지금 직원들 사무실이 너무 분산되어 있어요.(중략) 3층에 보면 컴퓨터실 미디어실 연결해놓고 또 사무실이 배치돼 있어요. 4층에도 보면 대강의실과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강의하는 소리가 좀 커지면 선생님들도 나오세요. 사무실에서. (a3)

커뮤니티 공간들이 같은 층에 있어서 협업을 이룰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구조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날 일들이 많겠다. 그리고 이제 공간이라는 거는 여차피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가 일어나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a2)

- ‘협업/네트워킹이 가능한 공간으로’에 대한 각 캠퍼스별 의견의 차이점
 - (중부) 이용자 간 협업 / 네트워킹이 가능한 공용공간부터 적절한 곳에 마련해야 함.
 - (북부) 큰 의견 없었음.
 - (서부) 혁신파크에 입주한 다른 기관과 협업하는 것이 큰 장점일 것임.
 - (남부) 큰 의견 없었음.

4. 이용자에 대한 특성 파악

1) 일자리보다는 다양한 경험으로

- 이용자들은 일자리가 급하다기보다 삶의 의미에 더 초점을 두고 있음
 -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50플러스캠퍼스 이용자들은 일자리 보다 삶의 의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임.

- 일반적으로 소득을 위한 일자리가 급한 중장년층은 50플러스캠퍼스를 이용하기보다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경향이 큼.

돈 필요하신 분들은 이미 일자리나 노동부 이런 데 가서 다 일자리 작업 활동을 하고 계시지 여기에 수업 들어오시는 분들은 재미와 내가 사회에 뭔가를 할 수 있나 이런 걸 찾아서 오시고 본인의 재미와 어떤 이런 어떤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오시는 거지 돈 벌어 오시는 분들 없거든요. (a4)

이분들은 지금 일자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수강생의 요구는 내가 이 활동을 하면서 즐겁게 뭔가를 배우면서 사회 보람이 그러니까 보람 있는 일을 하게 되면 좋고 그다음에 그게 아니어도 '나는 사회봉사 활동도 좋다.' 그렇잖아요. (a2)

- '일자리보다는 다양한 경험으로'의 영역은 전반적으로 모든 캠퍼스에서 동일한 의견이었음.

2)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사회적 역할을 하고 싶은 이용자들의 욕구

- 50플러스캠퍼스를 기반으로 능동적인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중장년 이용자들

- 배움을 토대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이후에 의미 있는 활동그룹을 만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자원봉사나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프로그램 및 공간의 설정이 필요함.

강의를 듣고 몇몇 마음 맞는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만들어요. 그러다가 더 발전적인 모임으로 이어지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a2)

본인들이 하다 보니까 그냥 놀다가 놀다가 했는데 우리가 저기 커뮤니티가 됐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우리 협동조합이 돼버렸네 이렇게 되는 건 굉장히 정말 자연스러운 방법이거든요. (a4)

-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사회적 역할을 하고 싶은 이용자들의 욕구'의 영역은 전반적으로 모든 캠퍼스에서 동일한 의견이었음.

5. 50플러스캠퍼스의 플랫폼 역할

1) 커뮤니티 형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 이용자들의 역량을 활용하여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장 만들어주기.

- 캠퍼스가 굳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됨.
- 이용자들 중에서 재능기부 등이 가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 이러한 자원들을 활용하여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공간과 기회를 제공한다면 더 큰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음.
- 배움→커뮤니티 형성→사회적 기여로 이어지는 방향성이 중장년 세대의 주요 욕구라고 할 수 있음.

제2의 인생을 여기에서 꽃피울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d4)

커뮤니티 하다가 자원봉사나 아니면 활동 같은 것도 하다가 나는 사업 같은 것도 해보겠다하면 공유사무실을 또 되게 하고 또 자기 전문성 때문에 강의도 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 다양한 사업들로 다른 것도 연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d3)

○ ‘커뮤니티 형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 영역은 전반적으로 모든 캠퍼스에서 동일한 의견이었음.

2) 중장년을 위한 전용공간으로서의 캠퍼스

○ 중장년 세대를 위한 대표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아야 함

- 복지증진으로 생애주기별로 전용공간이 많이 있는 편인데, 중년과 관련된 전용공간은 찾아보기 어려움.
- 아동 돌봄시설, 청소년 공간, 노인 돌봄공간 등은 쉽게 찾을 수 있으나 중장년 세대를 위한 시설은 유일하게 50플러스캠퍼스 뿐임.

지자체나 여기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청소년들은 청소년들이라고 만들어주고 아이들은 아이들이라고 만들어주는데 실질적으로 50~60대들은 이들이 50~60대라고 따로 공간을 만들어주는 건 없잖아요. (d2)

카페 같은 경우는 이제 열린 공간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일단은 들고(중략) 예를 들어서 50플러스 학생회관이나 이런 공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중장년분들이 오셔가지고 계시고 적극적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b3)

폐쇄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설립 목적에 충실한 그런 운영을 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 들거든요. 주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서의 축은 중장년이 되어야죠. (c3)

실질적으로 50~60대들은 이들이 50~60대라고 따로 공간을 만들어주는 건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또 그래도 우리 중장년 세대가 갈 데가 없어요. (d4)

- ‘중장년을 위한 전용공간으로서의 캠퍼스’의 영역은 전반적으로 모든 캠퍼스에서 동일한 의견이었음.

3) 세대이음의 기회 부여

- 공간마다 목적에 맞게 적절한 구성과 배치가 필요함
 - 50플러스캠퍼스는 중년 세대를 중심으로 하되, 다른 세대와의 교류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
 - 캠퍼스에서 다른 세대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와 노력이 필요함.

중장년 세대가 가운데 세대잖아요. 노년 세대와 청년 세대를 중간에 이룰 수 있는 그 세대는 그 역할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요. (c1)

캠퍼스와 카페가 누군가 제한되는 그런 공간이기보다는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열린공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b4)

- ‘세대이음의 기회 부여’의 영역은 전반적으로 모든 캠퍼스에서 동일한 의견이었음.

6 홍보의 활성화

1) 지역주민 친화적인 홍보 방향성

○ 주민들이 오고가며 50플러스캠퍼스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 보통 캠퍼스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가 형성되어 있으며, 출퇴근하면서 캠퍼스 앞을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많이 있음.
- 주민들의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홍보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함.

*여기가 2천 세대 가까이 돼요. 0000아파트나 그 옆에도 000 단지도 엄청 크죠.
여기 출퇴근 인구가 엄청 많아요. 근데 늘 이렇게 비껴가니까 이게 뭔지 몰라. (d2)*

*아파트 주민들이 이쪽 길로 다녀요. 이쪽에 계단 내려와서 00역으로 바로 가거든요.
그러면서도 이게 뭔지를 볼 수가 없어요. (d1)*

○ ‘지역주민 친화적인 홍보 방향성’의 영역은 전반적으로 모든 캠퍼스에서 동일한 의견이었음.

2)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여가문화 공간으로

○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이벤트 등을 통하여 지역 기반의 발전 도모

- 캠퍼스는 지역주민들을 기반으로 발전하는 것이 일반적임.
- 지역주민들에게 단순 홍보보다는 이벤트 등을 통하여 충분히 알리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어디 동장님이 전화를 하셔서.(중략) 여기 회의실을 이용해도 됩니까. 물어보니까 언제든지 오세요.
그러니까 문턱을 자꾸 낮추는 노력을 여기 스스로가 하면, 금방 여기는 활성화 될 것 같은. (d1)*

*센터 주변에 지역 주민 중에 굉장히 활발하고 활동성이 있으신 분이 센터 직원분들하고 굉장히 친한
어떤 유대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도 얻고 그럼 그분이 그 사업에 먼저 참여하고, 그럼 그분이
하는 사람 이렇게 데려와서 하고. (d3)*

○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여가문화 공간으로’의 영역은 전반적으로 모든 캠퍼스에서 동일한 의견이었음.

7. 공간운영의 새로운 방향성 모색

1) 코로나 이후, 비대면의 활성화

○ 온라인 교육이나 모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캠퍼스 활성화.

- 코로나를 거치며 비대면 문화가 많이 정착되었음.
- 개인적인 성향을 보이는 이용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임. 오프라인 모임뿐만 아니라 온라인 모임이나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사업을 하다 보면 '회의를 하겠습니다. 모여주세요'라고 하면 먼저 제가 줌으로 참여하면 안 되나요라는 문의를 되게 많이 하세요. (b4)

열려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북적북적한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지향점이 과연(중략) 왜냐하면 이미 온라인에 익숙해진 세대에 이 세대도 온라인으로 되게 많이 익숙해졌잖아요. (b1)

○ '코로나 이후, 비대면의 활성화' 영역은 전반적으로 모든 캠퍼스에서 동일한 의견이었음.

2) 공간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필요

○ 실무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필요한 공간사용 가이드라인

- 특성화된 공간들이 있는데, 이러한 공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음.
- 캠퍼스별로 잘 알려지지 않은 공간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며, 특성에 맞는 사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공간의 활용이 보다 책임 있고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함.

자율성을 완전히 기반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기본적인 상호 간에 지켜야 되는 가이드 같은 경우는 마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b1)

각 공간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리고 원활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가이드 정도는 마련을 한 상태에서 조금 열어두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생각합니다). (b3)

○ '공간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필요' 영역은 전반적으로 모든 캠퍼스에서 동일한 의견이었음.

제3절 실무자 FGI 결과

- 중부캠퍼스 실무자 인터뷰 분석 결과 총 2가지의 상위개념과 4개의 하위개념이 도출됨.
 - 상위개념과 하위개념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공간활용의 합리성 확보’, ‘공간특성과 목적에 맞는 내실화’ 이라는 하위개념을 토대로 ‘공간의 목적에 맞는 내실 있는 활용방안 강구’의 상위개념이 도출되었음.
 - ‘이용자와 강사에 대한 배려 필요’, ‘캠퍼스 운영의 중심축은 ‘정체성’임’이라는 하위개념을 토대로 ‘접근용이성과 탄탄한 운영방향성의 확보’라는 상위개념이 도출되었음.

〈표 5-6〉 중부캠퍼스 실무자 FGI 분석결과

상위개념	하위개념	의미
공간의 목적에 맞는 내실 있는 활용방안 강구	공간활용의 합리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은 상황과 욕구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고 대관될 수 있음. 다만 공간의 용도를 새롭게 잡으면 관련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 기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공간 세팅 문제가 있으며, 행정 용으로 활용되는 부분도 개선하여야 함
	공간특성과 목적에 맞는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사무실은 여타의 공유사무실에 비해서 특징점이 없는 편임 • 상담센터의 경우 내밀한 상담도 힘들고 자유롭게 열린 상담에도 불리한 공간을 가지고 있음 • 활성화 되지 않지만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공간은 목적과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예: 목공교실은 환기가 잘 안되며, 심화 교육도 불가능하여 만족도가 계속 낮게 나옴)
접근용이성과 탄탄한 운영방향성의 확보	이용자와 강사에 대한 배려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들에게 캠퍼스 활동을 어필할 수 있는 전시공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음 • 강역자들이 쉬거나 수업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음 • 캠퍼스 위치 설명이 까다로운 편이며 안내표지판 등이 부족함
	캠퍼스 운영의 중심축은 ‘정체성’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에 문화예술을 주된 방향으로 하여 구상된 공간들이 지금은 재단운영의 방향이 달라짐으로서 애매한 공간이 되었음 • 일자리가 전면으로 부각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모든 교육이 일자리로만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서부캠퍼스 실무자 인터뷰 분석 결과 총 3가지의 상위개념과 6개의 하위개념이 도출됨.
 - 상위개념과 하위개념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기본적인 부분에서 의문이 많이 생김’, ‘캠퍼스다운 캠퍼스’ 라는 하위개념을 토대로 ‘안내와 배려가 있는 캠퍼스 공간으로’의 상위개념이 도출되었음.

- ‘커뮤니티 활동의 안정성 확보’, ‘기존 공간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라는 하위개념을 토대로 ‘이용자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곳’라는 상위개념이 도출되었음.
-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려는 노력 필요’, ‘일자리가 중요하지만 일자리만 강조되어서는 안 됨’이라는 하위개념을 토대로 ‘목적에 맞는 캠퍼스 운영’이라는 상위개념이 도출되었음.

〈표 5-7〉 서부캠퍼스 실무자 FGI 분석결과

상위개념	하위개념	의미
안내와 배려가 있는 캠퍼스 공간으로	기본적인 부분에서 의문이 많이 생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 가능한 공간에 대한 간략한 안내와 설명 필요 • ‘캠퍼스’라는 용어 사용의 의미 설명
	캠퍼스다운 캠퍼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퍼스라는 명칭만큼이나 자유로운 표현, 게시 등이 가능하도록 일정 공간을 열어주기 바람 • 잠깐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어딘지를 모름 • 세대나 지역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어 자연스럽게 홍보가 가능한 공간으로서 1층 만들기(실제 대학과 지역주민의 관계처럼)
이용자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곳	커뮤니티 활동의 안정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뮤니티 활동을 지금보다 다양하게 지원해야 함 • 커뮤니티 인원이 많은 경우에 인원 제한에 걸려서 함께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기존 공간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내부에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스터디카페를 이용함 • 하나의 물리적인 격실에서 모임의 성격에 따라서 이동식 파티션을 활용하여 공간을 분할하여 사용 가능할 것임. 현재는 무조건 1모임 1공간의 개념임
목적에 맞는 캠퍼스 운영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려는 노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는 50플러스캠퍼스에 투자의 개념으로 오는 경우가 많음. 다양한 교육과 경험에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야간/주말 강좌 개설에 대한 고려
	일자리가 중요하지만 일자리만 강조되어서는 안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년 계층은 이 공간을 통해서 소통과 만남을 바탕으로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시키고 있음 • 어떤 일자리냐 라는 부분에 고민이 필요함. 이곳의 이용자들은 일하라는 말을 그렇게 듣고 싶어 하지는 않음

○ 남부캠퍼스 실무자 인터뷰 분석 결과 총 2가지의 상위개념과 5개의 하위개념이 도출됨.

- 상위개념과 하위개념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 ‘50플러스재단의 정체성 재정립’라는 하위개념을 토대로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전체적인 운영관리의 필요성’의 상위개념이 도출되었음.
- ‘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시간 등의 재정비 필요’, ‘캠퍼스의 외관과 내부에 대한 재구조화’, ‘캠퍼스 이용자의 다양화 필요’ 라는 하위개념을 토대로 ‘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이라는 상위개념이 도출되었음.

〈표 5-8〉 남부캠퍼스 실무자 FGI 분석결과

상위개념	하위개념	의미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전체적인 운영관리의 필요성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운영에 있어서 팀장님의 가치관이 매우 중요한 부분임 • 서울 안에 있는 네곳의 캠퍼스별로 함께 가져가야 할 원칙은 함께 가져가고, 특성화할 부분은 특성화 할 필요성이 있음. 이용자들이 캠퍼스별로 비교하고 컴플레인 하는 경우가 있음 • 공공의 운영특성상 행정과 절차의 복잡함, 관리와 안전을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서비스에 다소 제약이 되기도 함. 이러한 부분은 50플러스캠퍼스 라는 큰 이름하에 하나의 단순한 원칙을 마련 하는 것이 효과적임 • 실무자의 관리와 이용자의 자율이라는 딜레마 • 늘 사용하는 사람들만 사용하는 아쉬움 • 나름대로 공간활성화를 위해 이벤트를 하기도 하지만 지리적인 불리함이 있는 듯함
	50플러스재단의 정체성 재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세부터 64세에 한정된 서비스를 할 것이냐, 대시민 서비스를 통해서 누구나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할 것이냐 라는 질문이 드는데, 이는 재단의 정체성과 함께 가야 하는 부분임 • 전체적으로 50+가 대상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보다는 중장년이 주도한다는 개념이 더 바람직해 보임
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	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시간 등의 재정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특수목적 공간이나 모임 공간은 막상 쓰려고 하면 예약이 많이 잡혀있음 • 이용자가 자신의 목적(교육이나 상담)을 달성하면 바로 벗어나는 곳으로 이미지가 굳어지는 듯함 • 일일 교육시간을 보다 규모 있게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예를 들어 9시에 시작해서 4시까지 교육시간이라면 세 타임 정도 교육이 가능할 것임)
	캠퍼스의 외관과 내부에 대한 재구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갑고 딱딱한 느낌으로 캠퍼스가 조성되어 마치 병원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듦 • 현재 갖추어진 의자나 가구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캠퍼스에서 이용자들을 머무르게끔 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음
	캠퍼스 이용자의 다양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의 성격을 너무 강하게 규정하면 그에 벗어나는 사람을 배척할 가능성도 있음. 마실 오듯이 편안하게 누구나 올 수 있는 공간으로 두어야 함 • 대부분 중장년의 시기를 겪기 때문에 50세 이하의 세대들도 자유롭게 와서 이 공간에 대해서 인지하고 돌아간다면 의미가 있을 것임 • 또한 청년세대가 와보고 자신의 부모님이나 친척에게 이용을 권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 이용자라고도 볼 수 있음 • 한편 공간을 전세대에 오픈하지만 사업은 중장년에 집중하는 것이 더 필요함

- 북부캠퍼스 실무자 인터뷰 분석 결과 총 3가지의 상위개념과 6개의 하위개념이 도출됨.
- 상위개념과 하위개념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특수목적 공간의 내실화’, ‘조금 더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라는 하위개념을 토대로 ‘오래, 깊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의 구성’의 상위개념이 도출되었음.
 - ‘이용자 중심의 운영방향성 제고’, ‘사람을 키우고 기회를 제공하는 캠퍼스’ 라는 하위개념을 토대로 ‘주체적 이용자, 소속감을 가진 이용자’ 라는 상위개념이 도출되었음.
 - ‘캠퍼스 내부적인 문제의 해결’, ‘홍보의 중요성’ 라는 하위개념을 토대로 ‘혼란을 줄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함’ 이라는 상위개념이 도출되었음.

〈표 5-9〉 북부캠퍼스 실무자 FGI 분석결과

상위개념	하위개념	의미
오래, 깊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의 구성	특수목적 공간의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사무실이라는 다소 규정된 공간 외에 개인적으로 활용가능한 조용한 공간이 필요함 • 상담센터 안에서 비밀보장이 가능한 상담공간이 절실함
	조금 더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이 비어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특히 안내가 곳곳에 많이 필요한 상황임 • 편의시설이 없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고 오래도록 머무르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됨
주체적 이용자, 소속감을 가진 이용자	이용자 중심의 운영방향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안한 교육으로 시작해서 심화되는 방향성이 필요한데, 일자리 교육부터 강조되다보니 어렵게 느껴짐 • 캠퍼스는 사람을 만나고 재능을 나누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데, 일자리에 치중되다보니 접근성이 더 떨어짐을 느낌
	사람을 키우고 기회를 제공하는 캠퍼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퍼스 이용이나 적응과 관련하여 실무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중간역할을 하는 이용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행정조직으로서 나름대로 실적관리가 필요하겠지만 중간역할자를 키우고 커뮤니티 활성화와 같은 영역에 예산을 더 배정하는 것이 필요함
혼란을 줄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함	캠퍼스 내부적인 문제의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내부적으로 책임과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서비스 제공에서도 모호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너무 많음 • 한 건물에 다양한 주체가 들어와있따보니 한계성이 많이 나타남 • 관리 방향이나 내용에 있어서도 상이한 부분이 있어 장단점이 됨
	홍보의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시기에 오픈하게 되면서 시작부터 폐쇄하게 되었던 사정이 있었음. 현재 시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한편 홍보에 적극적이지 못하다보니, 이용하는 사람만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구조가 고착화 되가는 듯함 • 오프라인 공간만큼이나 온라인 공간에 대한 관심도 많이 필요함. 특히 코로나 이후 온라인을 통해서 검색하고 교육받는 능력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더욱 그러함

1. 목적에 맞는 내실 있는 공간 운영

1) 공간활용의 합리성 확보

○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공간을 운영하되, 목적성을 지키고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함.

- 공간은 상황과 욕구에 따라 다르게 규정될 수 있으며 대관될 수 있음. 공간의 용도를 새롭게 변경하게 되면 해당 공간의 성격에 맞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 기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공간 세팅이 이루어지기도 함. 또한 행정용으로 활용되는 부분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

교육공간으로 만들어졌지만 교육공간으로 쓰지 못하고 오히려 커뮤니티 공간에 적합하게 변경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각각의 공간에 대해서 활용도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A2)

대관에 대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야지만 저희도 대시민 서비스에서 자유로울 수 있죠.(중략) 모임 공간이 한 5개 정도 마련이 됐지만, 노조 사무실 쓰시고 옆에 행정 사무실 쓰시고. (중략) 사실은 계속 이렇게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A3)

○ ‘공간활용의 합리성 확보’ 영역에서 캠퍼스별 의견의 차이점

- (중부) 캠퍼스의 목적에 맞는 공간의 세팅이 중요하며, 이용자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해야 함. 내부인력의 행정적인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음.
- (북부) 안내가 곳곳에 있어야지만 빈 공간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음.
- (서부) 북부와 마찬가지로 공간활용을 위해서 전반적인 안내나 설명이 필요함.
- (남부) 캠퍼스가 보다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으로 공간 조성 되어야 함.

2) 공간 특성과 목적에 맞는 내실화

○ 전문화된 공간은 보다 전문적으로 발전시키고, 비활성화된 공간을 재구조화.

- 공유사무실은 민간 등 여타의 공유사무실에 비해서 특징점이 없는 편임.
- 상담센터의 경우 내밀한 상담이 어렵고, 자유롭게 열린 상담에 대해서도 장점을 가지지 못하는 공간적 문제가 있음.
- 활성화되지 않지만 여전히 변화 없이 유지되는 공간은 목적과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목공 교실은 교육 환경에 대한 불만도가 매우 높으셨어요. 늘 3점 왜냐하면 여기가 아무리 집
진기를 갖다 놔도, 환기가 안 되가지고 먼지를 창문이 없어서... 창문이 없어요. (A3)

상담센터인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어야 되고 또 좀 상담이
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개면적인 그런 프라이빗한 공간이 따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A2)

○ ‘공간 특성과 목적에 맞는 내실화’ 영역에서 캠퍼스별 의견의 차이점

- (중부) 활성화 되지 않은 채로 유지만 하고 있는 공간은 새롭게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 (북부) 상담센터의 경우 비밀이 보장되는 상담공간이 절실함.
- (서부) ‘캠퍼스’라는 명칭에 걸맞게 자유로운 표현이나 게시가 가능해야 함.
- (남부) 교육이나 상담의 목적을 달성한 후 바로 벗어나는 공간이 되지 않도록 중장년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적 내실을 기해야 함.

2. 이용자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곳

1) 이용자와 강사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

○ 이용자가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캠퍼스

- 이용자들에게 캠퍼스 활동을 어필할 수 있는 전시공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음.
- 이용자 또는 강사들이 쉬거나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함.

우리 캠퍼스는 이런 일을 좀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전시 공간. 이렇게 교육에서
우리가 그때 4층에서 모두의 광장에서 전시했던 것처럼 되게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이런 것도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도 나도 해보고 싶다. 이런 욕구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전시 공간 같은
것도 좀 공간이 많이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A2)

선생님들께서 쉴 만한 공간도 사실 없으세요. 만약에 오전에 하시고 강의가 있으시고 오후에 또
강의가 있으신데 식사를 하셔야 되는 그런 섬 같은 곳들이 있잖아요. (A4)

- ‘이용자와 강사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 영역에서는 대체적으로 캠퍼스별 의견차이가 크지
않았음. 이용자가 강사들이 쉬거나 다음 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함.

2) 50플러스캠퍼스의 정체성 바로 세우기

○ 최초의 정체성을 유지한 공간 등의 운영이 필요함.

- 인문,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구상된 공간들이 지금은 재단운영의 방향이 달라짐으로써 애매한 공간들이 되어버렸음.
- 일자리가 전면 부각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모든 교육이 일자리 중심으로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중년 계층은 이 공간을 통해서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일하라는 말을 그렇게 듣고 싶어 하지 않음.

이제 교육 방향 자체가 문화예술 분야를 자꾸 이제 좀 축소하다 보니까, 문화예술 분야를 위해서 활성화된 공간인 거예요. (A4)

여기오시는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퇴직하신 분들이다보니 일하라는 소리를 안듣고 싶어하세요. 여기서 사람들 만나고 소통하면서 외로움을 달래고 만남을 통해 고립감을 없애기를 더 원하시죠. (B3)

- ‘최초의 정체성을 유지한 공간 등의 운영이 필요함.’ 영역에서는 대체적으로 캠퍼스별 의견 차이가 크지 않았음. 일자리 교육의 전면 배치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었음.

3. 50플러스재단의 통합적인 운영관리의 필요성

1) 거시적인 차원의 컨트롤 타워 운영

○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수준의 운영원칙 수립 필요

-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들이 함께 가져가야 할 원칙은 함께 가져가고, 각 캠퍼스별로 특성화할 부분은 특성화할 필요성이 있음.
- 공공 운영 특성상 행정과 절차가 다소 복잡함.
-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관리와 안전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보다 단순한 원칙을 확립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실무자의 입장에서 관리적 측면과 이용자가 원하는 ‘자율’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는데, 이를 전반적으로 정리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함.

거시적으로 이걸 컨트롤하는 팀이 있는 게 맞아요. (중략) 중앙에서 각 각 캠퍼스의 성격에 맞게 기획전을 한다든가 뭔가 이슈가 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서 돌리는 방법도 있어요. (C1)

관리가 너무 어렵고 또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제 공공에서 해야 되는 너무나 많은.. 우리가 프로세스나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두는 제약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반 시민들이 와서 편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C3)

-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수준의 운영원칙 수립 필요’ 영역에서는 대체적으로 캠퍼스별 의견 차이가 크지 않았음. 캠퍼스별 차별화를 굳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캠퍼스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었음.

2) 50플러스재단의 정체성 재정립

-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수준의 운영원칙 수립 필요
 - 50-64세에 한정된 서비스를 할 것인지, 아니면 대시민 서비스를 통해서 누구나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이는 재단의 정체성과 함께 가야하는 부분임.
 - 전체적으로 50+가 대상자로서 강조되기보다는 주도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정말 스페셜 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범위를 완전 대시민 서비스를 통해서 뭔가 정말 이렇게 누구나 올 수 있는 누구나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것이냐... 이거는 사실은 저희 재단의 정체성이랑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C4)

어쨌든 50플러스를 대상으로 하지만 대상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50플러스가 주도한다고 하면 다른 연령층은 흡수할 수 있잖아요. (C1)

- ‘50플러스재단의 정체성 재정립’ 영역에서는 대체적으로 캠퍼스별 의견 차이가 크지 않았음. 공간의 내실화나 특성과 모두 캠퍼스 운영의 상위레벨인 50플러스재단의 정체성과 관련이 큰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따라서 보다 명확한 정체성을 정립하는 것이 운영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이해되고 있었음.

4. 주체적이고 소속감을 가진 이용자로

1) 이용자 중심의 운영방향성 제고

- 이용자들이 원하는 캠퍼스는 편안하고, 만남이 있고, 삶을 나누는 곳임.
 - 편안한 교육으로 시작해서 심화과정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무조건 일자리 교육부터 강조되다보니 이용자들에게 어렵게 느껴짐.
 - 캠퍼스는 사람을 만나고 재능을 나누는 장소로서의 역할이 기대되지만, 일자리에 치중되다보니 접근성이 더 떨어짐.

교육 과정에 대한 것들도 인문학적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이용자가) 되게 많았는데 일자리 중심으로 가니까 이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렵다. 재미가 없다. 우리가 이번에도 뭘 할 수 있냐' 뭐 이런 식의 불만도 있으신 것 같아요. (D1)

이제 커뮤니티에서 예산도 이제 없어진다고 그러고 커뮤니티 공간 이용 중심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서로배움터라고 해서 재능 나누는 그런 장을 이제 우리들끼리 만들고 있거든요. (D4)

- '이용자 중심의 운영방향성 제고' 영역에서는 대체적으로 캠퍼스별 의견 차이가 크지 않았음.

2) 사람을 키우고 기회를 제공하는 캠퍼스

- 이용자에게 중간자로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 이를 토대로 캠퍼스 활성화 제고
 - 캠퍼스 이용이나 적응과 관련하여 실무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중간역할을 하는 이용자 들이 역할이 매우 중요함.
 - 행정조직으로서 실적관리가 필요하겠지만, 중간역할자를 키우고 커뮤니티 활성화와 같은 영역에서 예산을 더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교육에서 커뮤니티까지 연결되는 부분은 다른 캠퍼스 같은 경우를 보면 학습지원단(이용자 옹다가 중간역할) 선생님들이 굉장히 역할이 컸어요. (D3)

이제 관계를 형성해 주는 어떤 역할을 촉진하는 게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중략) 실현하기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거를 하려면 굉장히 질적인 직원의 판단과 학습지원단을 그렇게 형성을 하려면 굉장히 어떤 양적으로 측정될 수 없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D1)

- '사람을 키우고 기회를 제공하는 캠퍼스' 영역에서는 대체적으로 캠퍼스별 의견 차이가 크지 않았음.

제4절 종합 및 시사점

- 중장년이용자 활성화를 위한 공간의 내실화와 배려.
 - 중장년은 영유아나 아동청소년, 청년 또는 노년 세대와는 달리 중년 세대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전담지원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음.
 - 퇴직이 빨라져 인생 이모작을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속에서 50플러스캠퍼스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자 만남의 장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서울시 내 네 곳의 캠퍼스는 설립 이래로 다양한 교육과 공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여전히 편의시설이나 공간의 내실화 측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용자와 실무자 FGI 분석 결과, 공통적으로 이용자나 강의자를 위한 편의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졌음.
 -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을 비롯해서 대중교통 이용이나 도보 접근시에 충분한 안내가 안되어 있다는 점은 50플러스캠퍼스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됨.
 - 교육공간을 비롯하여 모임 공간에 대한 불만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교육 이후에 활동이나 네트워킹을 이어갈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은 모든 캠퍼스에서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카페와 같이 모든 방문자들이 오고가며 활용함으로써 활력을 주는 공용공간은 50플러스캠퍼스의 얼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공간에 대한 관심과 운영이 필요함.
 - 아울러 도서관이나 중간중간 쉼터가 있어서 보다 깊이 있는 학습이나 이용자 간 대화가 가능한 공간들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 전문적인 공간은 전문적인 공간답게 충분한 집기와 관련 시설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여러 사람이 돌아가며 사용할 수 있는 모임 공간은 융통성 있는 운영과 원칙적 가이드 라인이 공존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 결국 공간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기본조건으로서 이용자에 대한 배려와 안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음.
- 플랫폼으로서 50플러스캠퍼스 공간.
 - 50플러스캠퍼스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서 공공의 영역이지만, 굳이 모든 것을 공공에서 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이용자들의 인식이었음.

- 이러한 인식은 캠퍼스가 일방적인 교육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아닌, 중장년이 단지 이용자가 아닌 주체적으로 주도하는 대상자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으며 아울러 플랫폼으로서 기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인식함을 의미함.
- 이용자들은 중년 세대에 초점이 맞춰진 유일한 기관으로서 50플러스캠퍼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교육과 커뮤니티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동세대를 만나고 남은 인생을 외롭지 않게 꾸려나가는 기쁨을 누렸다고 응답하였음.
- 학습지원단으로서의 활동이나 자원봉사,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의 변화를 통하여 50플러스캠퍼스가 기회를 제공해주고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장의 역할을 해주는 것에 큰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더 많은 자율권과 운영 참여 등을 원하였지만, 실무측 관점에서는 보안, 안전, 관리의 측면에서 다소 딜레마를 겪고 있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들 역시 중장년이 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능동적 참여자로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이들의 욕구에 최대한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 일자리 기관이 아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 최근 전세대의 일자리와 소득보장이 강조되면서, 50플러스캠퍼스에서도 기존의 인문학이나 문화예술 등의 교양교육이 대거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음.
- 50플러스재단과 캠퍼스는 중장년을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일자리 관련 교육이 중요한 부분이나, 현재로서는 모든 것이 일자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음.
- 특히 이용자의 특성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더욱 제기되는데, 현재 캠퍼스를 이용하고 있는 많은 대상자들이 실업과 소득보장의 문제에 아주 심각하게 노출된 계층은 아니라는 점임.
- 일자리의 문제가 중요한 중년 계층은 이미 일자리에 집중된 다른 사업에 참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음. 현재 이용자 계층은 소득보장에 대한 욕구가 최우선이 아니며, 다른 사람들과의 의미 있는 교류나 나아가 자신의 재능이나 노하우를 전달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더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교육을 마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강의를 이어가거나, 더 진일보한 조직으로 발전하는 과정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서울시 방침에 따라 전직 교육 등이 일괄적으로 전면 배치되는 실정이다 보니 이용자들의 부담이 더 커지고, 기대했던 교육들이 폐지됨에 따라서 캠퍼스 이용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는 것으로 분석됨.

- 더욱이 캠퍼스 초기부터 인문학이나 문화예술 교육에 초점이 맞춰 공간이 구성되다보니 일자리 교육과 같은 성격의 공간으로서는 다소 불편한 점도 존재함.
-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일자리 관련 교육을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논의하에 적절한 수준으로 줄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재정비하는 것이 공간의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음.

○ 캠퍼스별 특성에 따른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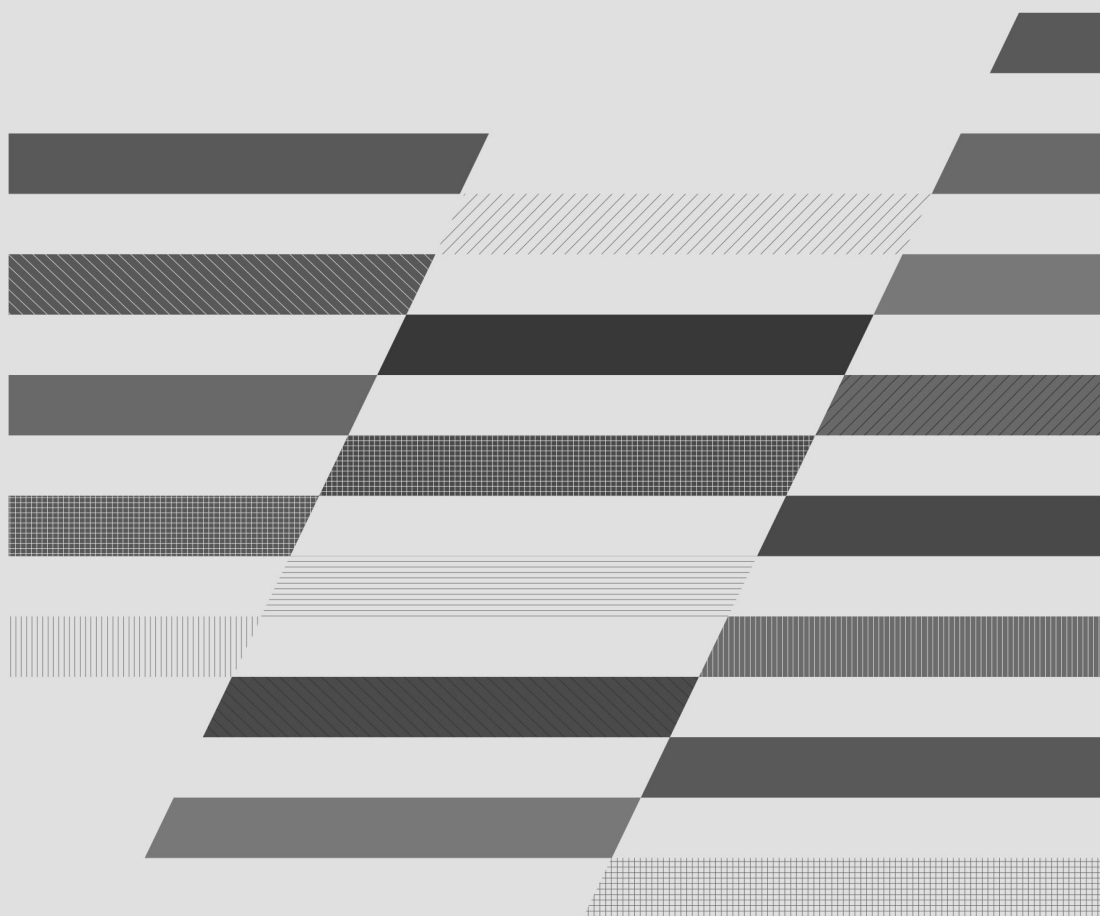
- (중부캠퍼스) 지리적으로 언덕의 꼭대기에 위치해 있다는 점과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약점들이 인식되고 있었음. 지하철 공덕역에서 물리적 거리가 먼 것은 아니나, 여름이나 겨울에는 언덕을 지나서 캠퍼스에 도달하기 힘든 부분이 가장 두드러졌음. 언덕 중간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터 같은 공간이 제공된다면 배려가 돋보일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중장년이 캠퍼스의 위치를 잘 찾을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이나 입간판, 발바닥 표시 등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강조되었음.
- (북부캠퍼스) 개관이 비교적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환경의 쾌적함이나 공간의 널찍함에 대해서는 장점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다만 넓은 공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음. 또한 공간이 넓다보니 내부에 대한 안내가 잘 되어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컸음. 즉, 공간의 내실화의 관점에서 의견들이 많이 있었음.
- (서부캠퍼스) 캠퍼스 공간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캠퍼스와 비슷한 상황이나, ‘캠퍼스’ 라는 자유롭고 생동감 있는 공간적 이미지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즉, 학습과 낭만 그리고 개성과 표현이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서 캠퍼스의 활성화를 바라보고 있음. 또한 혁신파크 내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 등을 이루어낼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중요한 장점으로 인식됨.
- (남부캠퍼스) 모든 캠퍼스가 중장년이 편안하게 와서 오래 머무르며 제2의 인생을 꾸려나가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고 있음. 그중 남부캠퍼스는 병원을 연상시킬 법한 내외부 인테리어의 변화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인식됨.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보다 내실 있는 재구조화가 필요하지만, 첫인상부터 너무 딱딱하고 정형화된 모습을 풍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의 물리적인 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제 6 장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활성화 방안



제6장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활성화 방안

제1절

종합

- 본 연구는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루어졌음.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서 공공공간의 이론적 검토, 캠퍼스 및 이용자 현황분석, 캠퍼스 이용자 및 미이용자 실태조사, 캠퍼스 주요관계자 FGI 등을 실시함으로써 입체적인 시각에서 캠퍼스 공간의 현 문제점을 도출하고 중장년과 관계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는 중장년을 위한 공간으로써 만남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연대성이 형성되어 공동체 형성으로 이어지는 공공공간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음.
 - 서부, 중부, 남부, 북부캠퍼스는 각 지역거점에서 중장년의 인생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중장년의 '갈 곳 없음'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한 기능을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교육, 일자리, 커뮤니티, 상담 등으로 구성된 사업체계를 통해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상담 또는 교육을 참여한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개발하는 등의 활동이 이루어져 온 공간이었음.
-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캠퍼스는 모임 공간 기능이 위축되었고 이에 따라 급격한 이용자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위드코로나 시기가 도래하고 공간 이용이 가능해진 현 시점에도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음.
- 2021년 기준 캠퍼스의 주요 이용자는 50+자치공간 및 카페, 교육 등을 이용한 중장년들이었으며, 캠퍼스별로 이용자의 특징이 나타남.

- 각 캠퍼스별로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캠퍼스의 주요 이용자는 교육 참여자였으며, 50+자치공간 및 카페이용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를 통해 캠퍼스는 중장년에게 교육공간으로 이해되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2021년 기준 북부캠퍼스를 제외한 3개 캠퍼스에는 카페가 위치해 있었고, 카페 이용자 수를 캠퍼스이용자 수로 반영하고 있음. 캠퍼스 이용자 중 3개 캠퍼스 모두 카페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한편, 50+자치공간과 카페 이용자 현황은 캠퍼스별 이용자 수 조사방식의 차이와 타목적으로 이용한 사람들이 혼합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에 대한 이해를 위한 명확한 근거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그러나 중장년의 소통과 만남의 공간의 욕구를 유추해 볼 수 있음.
 - 캠퍼스 활성화를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캠퍼스 이용자 수 조사 방식에 대한 통일되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함.
- 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 캠퍼스 이용집단과 미이용자 집단은 단체활동, 학습활동, 취미·여가활동 및 공간 욕구 측면에서 모두 상이한 특성을 보였음.
- 캠퍼스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미이용자의 특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미이용자 집단은 활동측면에서 이용집단보다 비적극적이었고, 학습활동 측면에서 절반 이상이 교육경험이 없고, 온라인으로 교육을 참여하고 있었으며, 봉사활동 경험이 적었음.
 - 취미·여가 활동면에서 주로 친구들과 하고 있어 동호회 회원 비율이 높았던 이용자와 차이를 보였음. 취미·여가활동의 어려운 점은 시간부족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여가정보 및 프로그램 부족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미이용자와 이용자 모두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활동을 경제활동 및 여가활동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공간에 대한 욕구도 동일하게 나타남.
 - 거주지 근처 공간의 욕구분석에서 미이용자는 이용집단에 비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미이용자 집단이 상대적으로 젊고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임. 즉, 거주지 근처 공간 욕구가 높은 캠퍼스 미이용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캠퍼스 공간이 공간적·내용적 측면에서 다른 공간과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함.
- 실태조사를 통해 캠퍼스마다 접근성, 활용성, 만족도, 공간욕구 등이 다르게 나타나 캠퍼스별 맞춤형 전략수립 필요성이 나타남.
- 중장년은 공간 선택 시 접근성과 활용성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이용자와 미이용자 동일한 결과였음.
 - 모든 캠퍼스는 서비스 및 정보 다양화와 자율공간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남부와 중부는 이동수단 마련, 북부는 공간 관리 효율화, 서부는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노력이 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중장년은 캠퍼스 공간을 교육, 커뮤니티활동, 일자리지원 공간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 특히, 미이용자는 캠퍼스는 커뮤니티 활동공간으로서 기능을 해야 한다는 욕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캠퍼스가 중장년이 편하게 방문하여, 만남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변화해야할 필요성이 보여줌.
- 중장년의 공간에 대한 심층분석을 위해 FGI를 실시한 결과 캠퍼스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간의 내실화와 배려, 플랫폼으로서의 공간,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지역사회 내 캠퍼스의 욕구가 드러남.
 - 이용자FGI에서 캠퍼스 내 중장년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공간의 내실화와 공간이용에 대한 배려에 대한 욕구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공간이용절차의 까다로움과 닫힌 공간으로서 캠퍼스는 중장년의 접근을 어렵게 하고, 만남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함.
 - 일자리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며, 삶의 의미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이용자의 특성 맞춰 공간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함.
 - 공공공간으로서 캠퍼스는 세대이음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기능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사업공간은 중장년을 위한 공간이지만 그 외 공간은 세대가 소통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지역사회 내 공간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함.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 친화적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문화공간을 추구해야 한다고 이야기함.
 - 실무자FGI에서는 목적에 맞게 공간을 운영하고 이용자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공간으로 변화해야함을 말함. 이를 위해서는 캠퍼스 운영에 대한 통합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컨트롤타워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함. 캠퍼스의 활성화는 이용자 중심의 운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였으며, 사람을 키우고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캠퍼스가 거듭나야 한다고 이야기함.
- 지금까지 분석을 통해서 캠퍼스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제2절 활성화 방안

1. 캠퍼스 공간 활성화 중장기 계획수립

- 캠퍼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캠퍼스 종합대응방안 마련과 캠퍼스별 맞춤형 전략수립 필요성이 분석과정을 통해 드러났으며, 이는 캠퍼스 공간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 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전략은 재단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비전과 미션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점과 캠퍼스별 개별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 계획수립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계획수립은 캠퍼스 미이용자의 참여에 초점을 두고 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캠퍼스 통합 전략과 함께 캠퍼스별 개별전략을 구축하여 각 캠퍼스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세부과업 수립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임.
 - [그림1]은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활성화 전략 체계도로서 중장기 계획 수립시 달성해야 할 세부적인 과업들을 종합 및 개별전략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임.



[그림 6-1]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활성화 전략 체계도

1) 종합전략

(1) 캠퍼스 통합운영체계 구축

- 캠퍼스 운영에 대한 컨트롤 타워 기능을 구체화하여 통합적인 운영체계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4개의 캠퍼스에 대한 주단위 또는 월단위 운영현황 관리, 주요 이벤트 및 활동 등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위해서 사업운영본부는 컨트롤 타워 기능을 마련하여, 캠퍼스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캠퍼스의 운영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지속적으로 캠퍼스 운영전략을 수립해 있어서 실증적인 데이터에 기반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캠퍼스는 컨트롤 타워 기능 지원을 통해 캠퍼스 운영에 대한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재단과 함께 운영방안을 공유함으로써 캠퍼스 공간 활용 혼란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임.

(2) 캠퍼스 이용자 수 조사체계 구축

- 캠퍼스 활성화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업참여자에 국한하여 이용자 수를 확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캠퍼스를 이용하는 중장년 등에게 회원카드 발급 등을 통해서 캠퍼스 이용시 실질적인 이용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캠퍼스 이용자 수 조사체계 구축은 향후 경영평가 성과지표에 대한 객관적인 실적 측정에 용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캠퍼스 활성화 정도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임.

〈캠퍼스 이용자 경영평가지표 (예)〉

1. 서울시 중장년 인구 대비 캠퍼스 이용자	
$\frac{\text{당해연도 이용자}}{\text{서울시 중장년 총 인구}} - \frac{\text{전년도 이용자}}{\text{서울시 중장년 총 인구}}$	
① 각 사업 이용자: 상담, 교육, 일자리, 커뮤니티 참여자 ② 캠퍼스 공간이용자: 멤버십 카드 발급 및 출입확인 절차 마련 제한	
2. 서울시 중장년 인구 대비 캠퍼스 신규 이용자	
$\frac{\text{당해연도 신규 이용자}}{\text{서울시 중장년 총 인구}} - \frac{\text{전년도 신규 이용자}}{\text{서울시 중장년 총 인구}}$	
① 각 사업 신규 이용자: 상담, 교육, 일자리, 커뮤니티 참여자 ② 캠퍼스 공간 신규 이용자: 멤버십 카드 발급 및 출입확인 절차 마련 제한.	

(3) 캠퍼스 시설운영 통합매뉴얼 제작

- 재단의 미션·비전에 입각하여 캠퍼스를 일관성 있게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공간 운영에 대한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함.
 - 캠퍼스 공간 활용 및 대관신청 절차 어려움, 공간관리 부담 등 이용자와 실무자의 이해를 해소하고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캠퍼스 공간 활용 절차 마련을 위해 캠퍼스 통합 공간관리 매뉴얼 필요.
 - 사업공간(교육장, 강당, 컴퓨터실, 공유사무실 등) 및 공유공간(50+서재, 동아리실, 복도공간 등) 운영방안을 구분하고 이용자 관점에서 이용 절차의 간소화, 탄력적인 공간 활용 등을 담아야 할 것임.

(4) 캠퍼스 세대이음 공간활용 방안 마련

- 캠퍼스가 중장년뿐만 아니라 중장년이 청년세대와 노인세대를 잇는 세대이음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공간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중장년의 욕구는 단순히 아지트 개념을 넘어 타세대와 함께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캠퍼스를 기대하고 있음.
 - 이용자 시각에서 캠퍼스의 기능을 개편하여, 사업공간을 제외한 공간을 모든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해야 할 것임.
 - 이를 실현하기 위한 캠퍼스 세대이음 공간 활용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5) 캠퍼스 실태조사(2년)

- 캠퍼스 이용자 및 미이용자의 욕구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변화하는 중장년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함.
 - 캠퍼스 이용자 및 미이용자의 공간에 대한 욕구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캠퍼스 공간 활용 공간전략을 보완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2) 개별전략

(1) 캠퍼스 지역특성 반영 대응전략 수립

- 캠퍼스별로 나타난 이용자의 개선 요구에 따라 개선 전략을 마련 필요.
 - 중부 및 남부캠퍼스는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셔틀버스 운영(지역 내 마을버스 MOU 방안 등)을 통해 이용자의 접근 편의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것을 제안함
 - 서부, 중부는 공간 이용방식에 대한 통합방안 마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건물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여 탄력적인 공간 이용 방안 마련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임.

(2) 캠퍼스 지역사회 홍보전략 수립

- 2020년 서울시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50플러스 재단 및 캠퍼스를 인지하고 있는 중장년의 3%수준으로 230만 중장년 대상자 중 약 7~8만명이 캠퍼스를 인지하고 이용하고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음.
- 캠퍼스 잠재 이용 대상자가 많다는 점을 착안하여 캠퍼스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캠퍼스 홍보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 이용자 및 실무자 심층인터뷰에서 나타났듯이 50플러스캠퍼스는 지역사회 내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음. 지역사회 내 알려지지 않은 공간이 서울시 중장년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는 것은 어렵다고 보이며, 홍보전략을 전환의 필요성을 암시함.
 - 캠퍼스 홍보전략은 기존 온라인 중심, 행사 중심적 성격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내 밀착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예를 들어 지역사회 유관단체 및 기관(주민센터, 50플러스센터, 사회복지시설 등)과 홍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캠퍼스 이용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과의 정기적인 소통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서 지역사회 내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전환을 꾀해야 할 것임.

(3) 캠퍼스 이용자 중심 공간활용 전략 수립

- 지역사회 특성 및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공간활용에 대한 캠퍼스별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함.
 - 중장년들의 공간 이용에 대한 조사 결과와 같이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캠퍼스의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 특성 반영 전략이 가미되어야 할 것임.

- 공통 매뉴얼을 통한 공간관리 방안에 덧붙여 지역별 여건에 따른 이용자 욕구 중심 공간 활용 전략 수립이 필요함.
- 예를 들어 대부분의 중장년(약 70% 이상)이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퇴근 이후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 대여시스템 마련하거나 사업 외 공간에 대한 개방방식의 전환 등이 있을 수 있음.

참고문헌

- 김세용. (1997). 도시공공공간의 쾌적성의 정량적 분석방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승경, 김주연, & 이승훈. (2009). 도시화에 따른 공공공간의 지속가능한 디자인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18(6), 158-165.
- 서울시 디자인총괄본부(2008),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2차) 사업추진 매뉴얼.
- 서울시50플러스재단(2022), 2021년도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보고서.
- 어정연. (2011). 도시수변공간의 공공영역 장소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Doctoral dissertation, 한양대학교).
- 유진선, & 유현준. (2008). 가로공간과 공공시설의 연계를 통한 도심 공공공간의 재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계획계, 28(1), 367-371.
- 이상민, 김용국, 이여경, 제지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7). 도시 공공공간 이용 활성화 연구-민간참여를 중심으로. 서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이상민, 차주영, & 임유경. (2007). 도시 공공공간 개선방향 설정을 위한 개념정립 및 현황 조사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보고서.
- 이상민, 차주영, & 임유경. (2007). 도시 공공공간 개선방향 설정을 위한 개념정립 및 현황 조사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보고서.
- 이은엽, 김정근, 임주호, & 허성웅. (2012). 도시내 공공공간의 활용 실태조사 및 효율적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연구. 서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장경철, 강명수, & 김기호. (2006). 대규모 도시개발과정에서 공공공간 확충에 대한 연구: 독립적인 전문설계조직의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2(12), 249-258.

- 정석. (1994). 건축 외부공간의 공공성 분석을 통한 협력형 도시공간설계 접근방안. 국토계획, 29(2), 327-329.
- 조은길. (2009). 공공공간에 있어서 경험디자인의 경향과 표현특성.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roadbent, G. (2003). Emerging concepts in urban space design. Taylor & Francis.
- Broadbent, Geoffrey(1990), Emerging Concepts in Urban Space Design, Van Nostrand Reinhold.
- CABE(2007), The Value of Space.
- Carr, S., Francis, M., Rivlin, L. G., & Stone, A. M. (1992). Public spa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lazer, Nathan., & Mark, Lilla..(1987). 'The American Public Space' in The Public Face of Architecture, 1st edition, The Free Press, New York
- Jackson, J. B. (1987). The American public space. The Public Interest, 74, 52.
- Krier, R., & Rowe, C. (1979). Urban space (p. 17). London: Academy editions.
- Strauss AL, Corbin JM.(1994). Grounded theory methodology: An overview. In: Denzin NK, Lincoln YS, editor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p. 273-285

〈참고 사이트〉

국립국어원 <https://www.korean.go.kr/>

서울시50플러스 2022-012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이용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발행일	2022년 12월
발행인	대표이사 직무대행 서울시평생교육국장 이회승
편집인	황윤주
연구자	이석환 권진 김윤영 민혜영
발행처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복지타운 3층 02)460-5050(대)
ISBN	979-11-92538-31-0(93330)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www.50plus.or.kr